



놀이터로 발길 잡고 심터로 매출 잡고 유통공룡 더블 플레이

야구장서 쇼핑·백화점서 산림욕
신세계·현대·롯데백 '공간 역발상'
"이커머스에 뺏긴 소비 주도권 탈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 트렌드의 주도권을 빼앗긴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반격에 나서고 있다. 키워드는 '파격'이다. 오프라인 유통은 전에 없던 새로운 공간을 플랫폼으로 추가하고, 기존 플랫폼의 틀을 깨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온라인으로 향하는 고객 발걸음을 돌려세우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올해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밀고 있는 뉴페이스 플랫폼은 '야구장'이다. 신세계그룹은 연초 SK와이브스(현 SSG 랜더스)를 인수하면서 "프로야구를 고객과 접목하면 '경험의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야구장을 찾는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해 '보는 야구'에서 '즐기는 야구'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는 본업과 야구를 연결시킨다는 계획을 밝히 '스포테인먼트(스포츠+엔터테인먼트)' 전략을 분명히 했다. SSG 랜더스 구단주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창단식에 앞서 음성 기반 SNS '클럽하우스'에서 "야구에 열정적이면 본업과 연결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야구에선 질 수 있어도 마케팅에서만큼은 이기겠다"고 했다. 정 부회장은 스타필드 복합쇼핑몰 위에 야구장을 지어 쇼핑과 레저를 즐기도록 하겠다고 야구장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배달받는 별도 앱을 개발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언급하는 등 인천의 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을 이마트, 이마트24, 스타벅스, 노브랜드 등 보유 브랜드를 알리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기존 백화점은 '쇼핑, 그 이상의 공간'을 꿈꾼다. 현대백화점은 최근 여의도에 오픈

한 새 매장 '더현대 서울'에 '리테일 테라피(쇼핑을 위한 힐링)' 개념을 앞세우며 '자연친화적 백화점'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물건을 사는 장소'에서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백화점 의미를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현대서울 5층은 1000평 규모의 실내 녹색공원 '사운즈 포레스트'가 압도적인 비주업을 자랑한다. 사운즈 포레스트를 비롯해 각 층마다 크고 작은 실내 조경 공간을 다 합치면 1만1240㎡(3400평) 규모에 이른다.

한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매장에 브랜드 수를 줄여 숲 등의 조경에 활용했다는 건 백화점 업계로서 도전이 분명하다"며 "당장의 매출보단 힐링 공간으로서 이미지를 택한 것"이라고 했다.

롯데백화점 역시 '체험'을 강조한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중동점에 '한샘리하우스'(380평), 울산점에 '한샘디자인파크'(1050평) 등 초대형 인테리어 매장을 연달아 열었다. 특히 울산점 한샘디자인파크는 기존 리빙관을 70% 확대해 프리미엄 토탈 홈인테리어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 최대 규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커머스에 대응하기 위해 서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보상 심리가 작용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회복 소비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야구장 뜬 용진이형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인천 SSG 랜더스와 부산 롯데 자이언츠의 프로야구 경기장을 방문했다. 정 부회장이 관중석에 앉아 핸드폰으로 경기 장면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4차 대유행 갈림길, 확산뎀 하루 1000명"

정부 "방역 위반시설 무관용 원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4차 유행기에 진입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

일 "유행이 다시 확산하면 짧은 시간에 하루 1000명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이런 위반이 다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집합금지를 실시하거나 운영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543명 증가한 10만527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이후 5일 연속 500명대 확진자 발생이다. 특히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가파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좀 더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공기업도 '채용한파' 을 40% 덜 뽑는다

LH 등 9곳 "채용계획 못 세워"

올해 공기업의 채용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상황 악화, 기관 내홍 등의 영향으로 채용 규모를 크게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고용 충격을 막기 위해 공기업의 채용 확대를 독려하고 있고, 아직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기업들이 있어 향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관련기사 5면

4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36개 공기업이 올해 정규직 5019명, 무기계약직 70명 등 총 5089명의 직원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6개 공기업이 채용한 직원 8350명과 비교해 39.1%(3261명) 감소한 규모다.

채용 계획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코레일로 올해 정규직 1400명을 뽑을 계획이다. 이 중 870명은 상반기 채용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정규직 1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시기는 검토 중이다. 한수원(432명), 한국수자원공사(365명), 한국도로공사(정규직 314명), 한전 KPS(230명), 한국남동발전(152명) 등도 채용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 공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 타격이 심한 일부 공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내부 사정이 생긴 공기업 등이 채용을 줄이거나 채용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공기업은 9곳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한국미사하나그랜드코리아레저는 올해 채용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직원들의 땅 투기로 논란을 일으킨 LH의 경우 채용 일정이 사실상 모두 중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채용 실적은 연도 중 퇴직·이직, 수시 인력 충원 등으로 연초 계획보다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내 가게가 전부인 당신에게 내 가게에서 모두 가능해지도록

i-ONE 소상공인

i-ONE 소상공인 | 오직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금융플랫폼
기업·개인 통합뱅킹부터 전문가의 사업정보까지 앱 하나로 누리세요!

기업·개인 통합뱅킹
간편 비밀번호만으로 통합 계좌 관리

대출·기간연장
초저금리특별대출 기간연장 신청 (단, 개별 SMS 통지 받은 고객에 한함)

전문적인 사업정보
소상공인 맞춤 전문 지식과 정책자금 정보 제공

경영 지원
세무 지원 및 거래처 관리 등 효율적 경영 업무 지원

초저금리대출 기간연장 하고 다양한 혜택 받기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BKI(은행)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일시인 2021년 11월 25일(2021.03.25) 기준이며, 2022.03.24. 통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는 가비 설명서 또는 고객센터(1599-25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가입 후 변경이 있을 경우 가비 설명서, 금융소비자보호(030-000-011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bk.or.kr)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영업장 방문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 당일 특별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 연장이 이에 대해 연체금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행정상황)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 단 운영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BKI(은행)는 금융행위를 받지 않습니다. * 온라인상에서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729-7400, e-mail : bks@ibk.or.kr

IBK기업은행

“백화점서 힐링하세요” 층마다 카페·휴식공간

‘오프라인’의 변신은 무죄

#12미터 높이에서 시원하게 물줄기가 쏟아지는 워터폴 가든이 고객을 맞는다. 인공 폭포 주변에는 숲에 온 것처럼 풀들이 무성하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면 뽕 뚫린 천장 사이로 하늘도 보인다. 한층 한층 올라설 때마다 드넓은 고객 휴식 공간과 유명 카페가 있다. 5층 실내 정원 ‘사운드 포레스트’는 쇼핑이 아니라 힐링하러 온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6층 복합문화공간 알트원(ALT.1)에서는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의 회고전이 열려 전시회도 즐길 수 있다.

백백이 들어선 각종 브랜드를 자랑하던 백화점들의 마케팅 공식이 바뀌고 있다. 더 많은 브랜드를 유치해 고객에게 매출을 뽑아내려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고객들을 배려해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매출로 연결된다는 생각에서다. 카페와 맛집, 휴게 공간 등은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진화된 백화점의 마케팅 방식이다.

이는 최근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 패턴이 이동하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오프라인 점포를 찾지 않는 고객들을 끌어들이려는 자구책이기도 하다.

◇백화점, 층마다 정원과 휴게 공간= 2월 말 개장한 더현대서울은 매장 한 층을 아예 정원으로 꾸미는 초강수를 뒀다. 상품 판매 공간을 늘리고 많은 브랜드를 유치해 매출을 높이려는 전략보다 고객 입장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중점을 뒀다.

각 층마다 카페와 휴식 공간을 배치하고, 통로 넓이나 높이도 기존 백화점보다는 훨씬 널찍하다. 더현대서울의 전체 영업 면적(8만9100㎡) 가운데 매장 면적(4만5527㎡)이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나머지 절반을 실내 조경으로 채웠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15개 점포의

실내 정원·전시공간·유명 맛집 매장 면적 줄이고 각종 편의시설 1층엔 명품 대신 식품관·멀티숍 대형마트 주차장 해외차 수리센터 편의점은 차량공유·세탁·복사까지 온라인 공세에 맞서 ‘서비스 차별화’

영업면적 평균보다 30%가량 낮다”고 설명한다.

더현대서울의 공간 배치는 매출 하락을 감수한 파격적인 시도였지만 위험한 승부수가 ‘흡린’이 됐다. 더현대서울은 오픈 일주일 만에 방문객은 150만 명에 육박하며, 매출은 당초 목표(130억 원)보다 3배 가량 높은 372억 원을 기록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목동점 7층도 약 800평 규모의 공간을 ‘유럽의 정원과 온실’ 콘셉트로 ‘글라스 하우스’를 꾸몄다. 기존 실내 정원까지 합치면 7층 전체면적의 85%가 실내의 정원이 되는 셈이다.

백화점의 얼굴인 1층에 명품과 화장품 매장을 두는 불운술도 속속 깨지고 있다.

지난해 신세계 타임스퀘어점은 1층을 아예 식품전문관으로 꾸며 들어서는 순간 형형색색의 과일이 고객을 맞이한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1년 동안 리뉴얼을 마치고 1~2층을 패션과 F&B, 체험형 복합 시설 공간 등으로 꾸몄다. 1층에 국내 최초 한정판 스니커즈 거래소인 ‘아웃 오브 스타크’와 한정판 풋볼 레플리카를 판매하는 ‘오버더피치’와 함께 전기차 ‘테슬라 갤러리’를 오픈했다.

◇대형마트엔 벤츠·BMW 수리센터=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을 노린다. 특히 대형마트는 최근 썰렁한 주차장에 벤츠와 BMW, 폭스바겐 등 외제차 수리센터를 속속 입점시켜 공간 효율화



더현대서울 실내정원 ‘사운드 포레스트’

주요 오프라인 매장 매출 및 매출신장률 ※ 출처: 각사

- 더현대서울**
2월 24일~3월 1일 매출 372억 원 · 방문객 150만 명 기록
- 롯데하이마트 메가스토어 압구정점**
3월 26~28일 3일간 약 100억 원 매출 기록
- 롯데백화점**
3월 26~29일 전년비 매출 신장률 53%
- 신세계백화점**
3월 26~29일 전년비 매출 신장률 51%
- 현대백화점**
3월 26~29일 전년비 매출 신장률 56%

에 나서고 있다. 수리센터를 임대해 수익을 얻고 자동차 수리 시간을 활용해 장을 보는 고객을 노린 일거양득 전략이다.

롯데마트는 2019년 7월 BMW코리아와 MOU(업무협약)를 맺고 빠른 경쟁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PIT 서비스’를 부산점과 사상점에 선보인 데 이어 최근에는 춘천점 지하 1층에 영업면적 60평(198㎡) 규모의 ‘폭스바겐 춘천 시티익스

프레스’를 오픈했다. 홈플러스도 지난해 말 영등포점 지하 2층에 ‘메르세데스 벤츠’ 수리센터를 입점시켰다. 이마트는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하고 있다.

편의점은 전국 방방곡곡에 위치한 이점을 활용해 24시간 운영되는 종합 생활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GS25와 CU, 세븐일레븐 등은 택배와 공유 차량 서비스, 세탁, 복사 서비스까지 동네에서 슬리퍼

신고 웬만한 서비스가 죄다 가능해진 ‘슬세권 만물잡화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과 경쟁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넓은 공간과 미학적으로 뛰어난 인테리어에 유명 맛집까지 꼭 들러야 할 이유를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기억을 넘어
희망을 품다

잊지 않겠다는 7년의 약속...

그 약속이, 기억이
아픔을 이겨내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기억을 넘어 희망을 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단원고 4.16기억교실

4.16민주시민교육원 개원식
일시: 2021년 4월 12일(월) 14:00~
장소: 4.16민주시민교육원 광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34)
방법: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생중계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4.16민주시민교육원
4.16 Institut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온라인서 고르고 백화점 매장에서 입어보고

‘노드스트롬’ 벤치마킹 통했다

(美 3대 유통사)

온·오프라인 접목 ‘로컬 매장’
코로나 팬데믹에도 실적 선방



미국 3대 유통사로 꼽히는 백화점 ‘노드스트롬’은 아마존 공세에 대응해 신개념 매장을 도입하고 경쟁사인 아마존의 강점을 벤치마킹했다. 노드스트롬이 수많은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이 파산하는 와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오프라인의 장점인 ‘경험’을 파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이커머스의 강점을 접목해 다양한 시도를 꾀한 덕분이다.

노드스트롬은 철저히 소비자가 원하는 지점에 주목했다.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픽업하는 O2O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온라인으로 구입한 제품을 보다 빠르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소비자 니즈를 읽은 전략이다. 국내 백화점들도 몇 년 전부터 온라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기 시작한 O2O 서비스의 원조가 바로 노드스트롬이다.

2017년에는 ‘노드스트롬 로컬’ 매장을 오픈했다. 온라인에서 선택한 제품을 지정한 매장에서 2시간 이내에

착용해 볼 수 있는 매장으로, 구매 전 착용하고 싶은 욕구를 반영했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직접 착용하지 못해 어울리지 않는 제품을 고르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이 매장은 직원의 스타일 제안까지 받을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착용 후 마음에 드는 제품은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다.

노드스트롬은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에 힘입어 온라인 매출 비중도 끌어올렸다. 2019년 33%였던 온라인 매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지난해 50%까지 늘어났다.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매출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노드스트롬은 2020회계연도(2020년 2월~2021년 1월)에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기도 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반도체·車 ‘V자 반등’ 화학·정유·철강도 흑자 전환

주요기업 1분기 실적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 1분기부터 기지개를 켜고 있다.

4일 산업계와 애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전자·반도체, 화학, 정유, 철강, 자동차 분야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전망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선업 실적 회복은 최근 대규모 수주에도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는 완전한 ‘V자 반등’에 성공했다.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9조 원에 육박한 8조745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62.5% 늘어난 1조3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4분기 9000억 원대를 기록하다 이번에 다시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는 D램과 낸드 모두 기존 비트그로스(비트 단위 출하량 증가율) 전망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과 PC

SK하이닉스·현대차 ‘1조’ 복귀 선박 수주 조선 내년 회복 기대

반도체 부족에 불확실성은 여전

수요가 탄탄한 가운데 서버 수요도 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1조5230억 원, 1조7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3%, 141.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 모두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은 1조 원을 밑돌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월 국내 신차 판매는 10만1735대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월보다 23.9% 증가하며 내수 시장이 살아나는 모양새다. 3월에는 현대차가 국내외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증가한 37만5924대를 판매하며 반등했다. 기아는 25만1362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 증가한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지연됐던 코로나19 수요 회복으로 화학과 정유업계, 철강업계 실적도 반등한 것

분야	기업명	2021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전자	삼성전자	8조7458	35.7%
	LG전자	1조1798	8.2%
	SK하이닉스	1조3001	62.5%
화학	LG화학	9280	292.4%
	롯데케미칼	4211	흑자전환
정유	SK이노베이션	978	흑자전환
	S-OIL	2772	흑자전환
조선	한국조선해양	510	-58.1%
	삼성중공업	-317	적자지속
	대우조선해양	10	-99.6%
철강	포스코	1조2661	79.5%
	현대제철	1490	흑자전환
자동차·부품	동국제강	739	31.5%
	현대차	1조5230	76.3%
	기아	1조721	141.2%

※ 출처: 각 사 및 애프앤가이드 ※ 2021년 1분기는 전망치

기 대비 각각 58.1%, 99.6% 영업이익이 하락한 510억 원, 10억 원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선박 수주가 크게 늘었지만, 수주 물량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1~2년이 소요된다는 점이 실적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1월 기준 코로나 위기극복지수가 85.3포인트(p)로, 코로나발 경제충격 강도 100 대비 85.3% 회복됐다고 분석했지만 2분기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자동차에 이어 IT·가전까지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현대차 울산1공장이 7일부터 14일까지 휴업하기로 하면서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가전 업체들은 반도체 공급 부족 심화에 대비해 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TV, 컴퓨터 등 교재 수요가 급증했고, 가전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부품 공급 부족 우려도 커졌다. 권태성 기자 tskwon@

으로 파악된다. LG화학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928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2.4%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케미칼(영업이익 4211억 원), SK이노베이션(978억 원), 에스오일(2772억 원) 등은 올해 1분기 흑자전환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포스코는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

은 기간보다 79.5% 상승한 1조2661억 원 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동국제강도 전년 동기 대비 31.5% 증가한 영업이익 739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현대제철은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반면, 조선업계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적자 지속이 예상되고,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은 전년 동

백신 접종 기대에 제조업 체감경기 6년 만에 최고

제조업 2분기 체감경기전망이 큰 폭으로 개선돼 6년 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출 증가와 2월 말 시작된 국내 백신 접종이 경기 회복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과 환율 변동성, 금리 발자 가능성 등에 대한 불안 심리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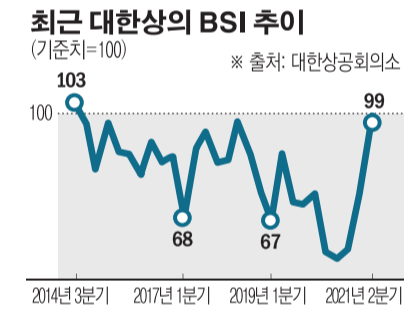
대한상공회의소는 2분기 경기전망지수(BSI)가 직전 분기보다 24포인트(p) 상승한 99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4년 3분기(103) 이래 6년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22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전망지수는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다. 100 이하이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및 전 세계 백신 접종 확대에 힘입어 최근 3개월(2020년 12월~2021년 2월) 동안 수출이 전년 대비 11.1%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더해 최근 국내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 “2분기 BSI 24P 올라 환율 변동성이 가장 큰 리스크”



실제로 수출과 내수 부문의 체감경기는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됐다.

2분기 수출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109로 직전분기(82)보다 27p 상승했다. 내수부문은 97로 24p 올랐다.

업종별로는 화장품(107), IT 가전(105), 기계(105), 의료정밀(104), 식음료(103) 등이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기준치(100)를 웃돌았다. 반면 조선·부품(71) 업종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대형조선사들은 최근 수주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소형조선사들의 일감

감 현상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건설업 회복이 호재로 작용한 강원(121)을 비롯해 광주(117), 대전(115), 서울(114) 등 11곳이 100을 웃돌았다. 부산(81) 등 6개 지역은 100을 밑돌았다. 자동차·부품업계가 많이 몰려 있는 부산의 경우 최근 완성차업체 생산 차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대외 리스크로는 환율 변동성(42.9%), 유가 등 원자재가 상승(27.9%), 마·중 무역갈등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25.5%), 신중국 경기침체(24.3%) 등의 순으로 꼽았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시니어 품격을 위한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4월호 발매

COVER STORY 장수의 과학

- PART 1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오늘과 내일
- PART 2 의료의 미래, 스마트 병원
- PART 3 인공지능 트레이너를 만나다
- PART 4 잠 못 드는 밤, '슬립테크'가 온다
- PART 5 푸드테크의 유망주, 로봇
- PART 6 반려동물 건강도 AI로 똑똑하게



신라보가 만난 사람



멈추지 않는 도전과 진심으로 하나의 장르를 만들다 대체 불가 가수 권인하



"새로운 시도는 열정에서 출발한다" 안경 디자이너 김종필



생활 속 법률 상식 아름다운 이별을 위하여 구해줘 부동산 뜨는 수익형 부동산

느린 여행

봄바람 타고 들려오는 유쾌한 노랫소리, 덕포진교육박물관



감성 예술! 미술관 여기 미술관 풀밭에서 소풍과 낮잠을



슬기로운 연금생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절세 가능

<1200만명분>

상반기 접종 물량 부족에 “러·중산 백신 도입” 목소리

2분기 770만명분 국내 도착 확정
얀센·모더나 등은 도입 확정 안돼
중백신 ‘시노팜’ 안전·효과성 미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국 공급을 우선해 수출을 중단하는 국가가 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러시아·중국산 백신을 수입해 수급 불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4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분기 도입이 확정된 백신 물량은 최소 769만8500명분(1539만7000회분)이다. 제약사와 개별계약 물량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5월 100만 명분, 6월 250만 명분이 들어오고, 화이자 백신은 4월 50만 명분, 5월 87만 5000명분, 6월 162만5000명분이 들어온다. 여기에 국제 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서도 두 백신이 일부 공급된다.

하지만 상반기 1차 접종대상인 1200만 명에게 접종하기에는 부족한 물량이다.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 도입이 예정돼 있었으나, 2분기

에 접어들어 현재까지도 도입 물량·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바백스 백신은 미국 노바백스와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 간 백신기술 도입계약(기술 라이선스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다. 원재료만 무리 없이 공급된다면 생산량 전망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노바백스가 원재료 부족을 이유로 유럽연합(EU)과 백신 공급 계약 체결을 연기한 점이 국내 생산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일각에선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스푸트니크V’ 백신과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대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1일 논평에서 “흰 백신이건 검은 백신이건 코로나19만 잘 잡으면 된다”며 “집단면역을 위해서라면 러시아산 백

신이면 어떻고 중국산 백신이면 어떤가. 안전성과 효능에 문제가 없다면 국내 도입을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백신은 방역당국에서도 대체 백신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해서는 변이라거나 공급의 이슈,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 백신에 대한 확보 필요성,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산 백신에 대한 방역당국은 물론, 전문가들도 신중론을 펴고 있다.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러시아 백신과 달리, 중국 백신은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해서다. 시노팜 백신을 공급받은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부담 요소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선진국 ‘백신 확보’에 열 올리는 사이에 中, 중남미까지 ‘백신외교’

중국이 공격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출 공세를 통해 자국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지아이신문(닛케이)은 4일 중국 정부 및 국제연합아동기금(유니세프) 등 국제단체의 자료를 인용, 중국산 백신을 승인하거나 공급 계약을 맺은 국가가 최소 70여 개국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백신 기부를 받은 국가나 지역도 37곳에 달했다. 마스크 공급이나 의

재 생산을 확대한 데다가, 국내 감염자가 적은 터라 해외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영국 조사업체 에어피터의 라스무스 백 한센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직후부터 백신에 투자해 왔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는 대도시 내 접종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취했는데, 인구 2100만 명이 넘는 베이징시에서는 900만 명이 백신을 맞았다. 전국적으로는 백신 접종이 인구 100명당 8회 정도에

70여 개국서 중국산 백신 승인·공급 계약
마스크·의사 파견 포함 땀 100개 국 원조
신흥·개도국 등 외교·경제력 영향력 강화

그치지만, 이런 전략에 힘입어 수출에 대한 반발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 국가가 백신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점도 신흥국 및 개도국의 중국 의존도 심화를 부추기

사 파견을 포함했을 때 중국은 100개국 이상에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자국 백신을 확보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선진국은 되레 선구매를 통해 자국 인구를 뛰어넘는 백신을 싹쓸이해 가면서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코로나19 원조를 통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교·경제적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광역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에 속한 국가들은 물론, 중남미에까지 영향력을 뻗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이 다른 선진국과 달리 이러한 움직임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선제적 투자와 자국 내 감염 억제에 있다는 평가다. 중국이 발 빠르게 백신 원자

는 요인이다. 선진국들이 자국 인구를 크게 웃도는 백신을 선점해 가면서 신흥국과 개도국들은 중국과 러시아산 백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미국 듀크대학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계약으로 확보한 백신 수는 10억 명분 이상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20%에 달한다.

결국, 선진국의 이기주의가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무기화에 힘을 보태는 셈이다. 실제로 중국은 볼리비아 등에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고 나서 일대일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남미 가이아나는 중국의 기부 표명에 지난 2월 대만과의 대외 사무서 개설 합의를 파기하기도 했다. 미국 조사회사 로딩그룹의 매튜민 지애널리스트는 “(신흥국과 개도국들이) 백신 공급을 중국에만 의지하면 외교적 위험을 안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명’ 안된다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지난 1년의 경험을 돌아보면, 현재 상황은 대유행이 본격화하기 직전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차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겸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세계적으로도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모든 지역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은 영국 변이주로 인해 3차 유행이 시작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와 세계 모든 나라가 확산하는 교훈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권 차장은 4월 한 달간 모든 국민·시설이 기본방역수칙 준수, 불필요한 모임 취소, 예방접종 참여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내일(5일)부터는 1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기본방역수칙이 본격적으로 의

무화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관리에서 방역수칙 게시안내가 빠지고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인원 게시가 추가된다. 또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공정위, GS 조사착수

‘일감 몰아주기’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GS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역삼동 GS칼텍스 본사에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GS그룹의 시스템통합(SI) 업체인 GS ITM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반갑다, 태안 꽃게

4일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선항 수협 위판장에서 직원들이 갯 잡아 온 꽃게를 선별하고 있다. 위판가는 kg당 4만1000~4만3000원이다.

연합뉴스

작년 퇴직연금 적립금 250조 돌파

연수익률 2.58%로 0.33%P 올라
추가상승에 실적배당형 10.67%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액 급증에 힘입어 250조 원을 돌파했다. 전체 수익률은 2.58%로 전년 대비 0.33% 포인트(P) 상승했다.

어 35.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2.58%로 전년보다 0.33%P 상승,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1.85%, 2.56%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 DC, 기업형 IRP와 개인형 IRP 수익률은 각각 3.47%, 3.84%로 DB형(1.9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품 유형별로는 원리금 보장형이 1.68%, 실적 배당형은 10.67%다. 금리 인하, 주식가격 상승 등으로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 간 수익률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경영악화’ 공기업 진퇴양난

마사회 작년 첫 영업적자 속 정부 채용압박에 ‘일자리’ 무리수

안정적인 직장으로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공기업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피하지 못하고 신규 채용을 크게 줄이고 있다.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규 채용이 사실상 중단됐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사상 첫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2000억 대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마사회는 전 직원에 대해 주 1회 휴업을 시행하는 한편, 사내 노동위원회 협의를 거쳐 기본급의 5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법정 휴업수당 기준(기본급의 70%)을 밑도는 수준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임시 휴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다. 두 곳의 공기업은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

공항 이용객이 줄어든 인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도 채용은 진행하지만, 규모는 줄일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0명에서 올해 40명으로 채용 인원을 줄이고, 지난해 132명을 뽑은 한국공항공사도 올해 상반기 기준 96명만 채용할 계획이다.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LH는 최근 예정된 채용을 무기한 연기했다. 당초 LH는 올해 지난해(960명)보다 25% 늘어난 약 1200명을 뽑을 예정이었으나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 신규 채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기업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도 앞서 1월에 올해 공공기관(350개)에서 2만6500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지난해 실적 2만7000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소 높게 잡았다. 그러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점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신규 채용 압박에 무리해 서라도 채용을 늘려야 하는 처지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경영관리 총점이 55점인데 일자리 창출이 7점에 달한다”며 “성과급을 받으려면 점수를 잘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與 “막판 샤이 진보 결집” vs 野 “끝까지 최선 다할 것”

재보선 D-2

朴 캠프 “뭉치기 해명” 사퇴 촉구 악재 겹쳐 갈수록 착잡한 모양새 뭉치, 안철수와 시민들에 지지 호소 “정권 심판” 앞세워 승기 굳히기

4월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권은 갈수록 착잡해지는 모양새다. 여러 악재가 겹쳐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야권은 방심하지 않고 더 뽄뽄 뭉치며 승기를 굳히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4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너무 악재가 많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주민 의원과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위선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잇따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율이 전국 20.5%로 높게 나왔지만 이마저도 마냥 달가워할 수는 없다. 과거 선거 때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했지만 이번 선거에선 정부·여당 심판론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다만 박 후보 캠프는 높은 사전투표율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캠프 관계자는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조직



박영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2021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시스



김영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4일 '2021 부산 부활절 연합 예배'가 열린 부산 북구 포도원교회를 방문해 악수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 뭉치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막상 까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 내외로 결판이 날 듯하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를 향한 공격도 계속 이어졌다. 박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인 진성준 의원은 오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전날에는 입장문을 내고 “오 후보의 이해 충돌 의혹과 거짓 해명에 대해 법적·정치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중대한 구상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야권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뽄뽄 뭉치는 모양새다. 잇따른 여당의 공격에도 개의치

않으며 유세를 이어갔다. 이날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오전에는 교통회관을 방문해 운송업계 관계자와 만났고 오후엔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막판 표심 끌기에 집중했다.

오 후보 캠프 내부 분위기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오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매우 진지하게 진중하게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정권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의 여망이 크고 그 여론이 들려오기 때문에 힘을 얻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승리를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방심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캠프 관계자는 “민주당과 비교하면 수적으로 조직적으로 일단 열악하지 않나”며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당 내부와 캠프는 삼패인을 미리 터뜨린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며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는 분위기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상 기자 joooon@

4·7 재보선後 정국 시나리오는

朴 승리면 정권 재창출 동력 뭉치기면 대선 주도권 장악

‘대선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4·7 서울, 부산 시장 재보선에 대한 민심 향방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정국의 판세가 격변할 전망이다. 특히, 승리한 쪽은 차기 대권까지 승기를 쥐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패배한 쪽은 물론 민심 수습과 회복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승리한다면 여권은 문재인 정부 말 ‘정권 심판론’으로 몰렸던 위기를 반전할 기회를 잡는다. 특히, ‘정권 재창출’의 디딤돌로 삼게 된다. 사실상 여권 주류인 친문(친문재인)계 ‘제3후보’들이 경선판에 뛰어들 공간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 선대위원장이자 당 대표였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동력을 얻게 된다.

야권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패한다면 당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을 떠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사실상 구심점을 잃게 된다. 야권의 명운이 갈린 험로가 예고되면서 새판 짜기에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항하면서 국민의힘과 중지를 모을 가능성도 작아지게 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시장을 내주게 되면, 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가피하다. LH 투기 의혹 등을 계기로 세 걸집조차 어려운 형국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후폭풍을 고스란히 재보선 결과로 맞이했다는 점에 힘이 실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다가올 5·9 전당대회를 통해 수습 국면 전환을 모색하지만, 최고위 총사퇴 등 전망도 새어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오 후보가 승리할 시 야권은 특히 현 지도부를 비롯해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원심력이 발휘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비대위원장을 재신임해 대권 준비까지 맡기거나 당대표 추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 김 비대위원장의 과감한 중도 외연 확장과 호남 구에 전략이 유의미했다는 판단 아래 재·보선 후 윤 전 검찰총장을 국민의힘에 연착륙시키는 것 또한 기대할 수 있다. 김 비대위원장과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정권 심판론에 가열하면서 김무성 전 의원이나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 차기 당·대권을 꾀하던 구주류 세력의 역할론은 가리앉을 전망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朴 ‘청년층 표심’ vs 野 ‘중도층 잡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막판 표심 모으기에 집중했다. 박 후보는 부활절 행사 참석과 강북 지역 집중 유세를 통해 청년층 표심 끌기에 나섰다. 오 후보는 운송업계·청년층을 만났고 시민과 함께 한 강변을 걸으며 중흥무진으로 움직였다.

박 후보의 막판 유세는 ‘청년’이 키워드였다. 박 후보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활절 관련 메시지를 냈다. 주목할 점은 박 후보가 ‘청년’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박 후보는 “예수 부활의 날 코로나19로 아픔과 고통을 겪는 공동체의 빠른 회복을 이끌어 주시고 특히 이 땅 청년들의 지친 영혼에 희망의 은총을 내려

박영선, 폐북에 “청년들의 지친 영혼에 희망의 은총을”

오세훈, 운송업계 종사자 간담회後 2030과 유세활동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박 후보는 오전 베다니교회 부활절 예배와 명동성당 부활절 미사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에도 부활절 기독교 연합예배를 위해 사랑의 교회를 방문했다.

박 후보가 청년을 언급한 이유는 최근 20·30대의 표심이 빠져나갔다는 분석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도 본인이 청년 관련 공약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후엔 대학가 물린 강북 지역에서 집중 유세에 나섰다. 대학가에서 청년과 간담회도 준비

중이다. 오 후보의 막판 유세 키워드는 ‘글고루’였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을 찾아 택시·버스업계 종사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후엔 본인이 시장 시절 조성한 세빛섬을 방문했다. 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시민을 만나 한강변을 걸으며 표심 끌기에 집중했다. 오 후보는 “(안 대표와) 나눔과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상생의 정치, 공존의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모범 사례를 서울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고 약속했다.

박준상 기자 joooon@

시진핑 방한 빼고 백신협력 강조한 중국

한중 외교회담 ‘2+2대화’ 추진 회담 발표문 강조점 달라 부담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북핵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외교안보대화(2+2 대화)를 상반기에 추진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다만, 발표된 중점 방안에 대한 결이 달라 양국의 적지 않은 부담이 감지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3일 오후 푸젠성 사면 하이웨호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가급적 조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고 6년 만에 외교안보대화(2+2대화)를 상반기에 재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의용(왼쪽)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3일 중국 사면 하이웨호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밤 홈페이지에 게시한 ‘왕이 부장과 정의용 장관의 회담’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선 한국 발표와 달리 시 주석 방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중국은 한·중 양국이 ‘백신여권’과 백신에 대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발표문에서 “양국은 건강코드 상호 인증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백신 협력을

전개하며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백신여권은 양측이 집중하고 있는 백신을 서로 인정해야만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중국에서 개발한 백신을 국내에서 승인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된다.

중국은 현재 자국 백신만 대상으로 백신여권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서 집중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자국에서 승인한다면 백신 여권이 가능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중국은 “한국이 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제의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측이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은 우리 정부 발표 자료는 물론 정 장관 기자간담회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 주목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우클릭’ 국민 늘었다

이념성향 ‘보수’ 늘때 ‘진보’ 줄어

대한민국 국민 중 자신의 이념 성향이 보수라는 사람이 3년 연속 증가했다. 반면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년째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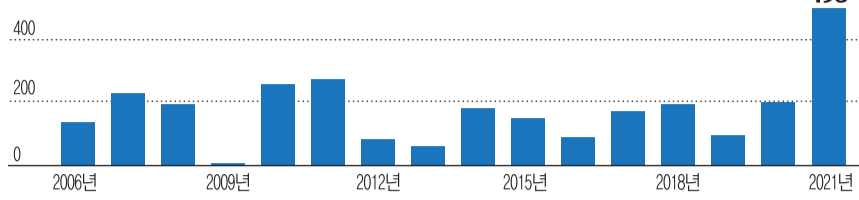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 4일 공개한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 중 이념 성향이 보수라는 응답은 2019년보다 1.2%포인트(P) 증가한 22.1%로 나타났다. 2017년에 18.6%로 저점을 찍은 후 3년 연속 상승이다. 이념 성향이 진보라는 응답은 0.9%P 줄어 24.0%로 나타났다. 2018년 28.1%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년째 하락이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응답은 ‘중도’였다. 중도는 47.6%로 2019년보다 0.4%P 상승했다. 박준상 기자 joooon@



SK하이닉스의 첨단반도체가 언택트 시대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이 멈추지 않도록
 늘 함께하는 첨단 기술이 있습니다

아시아 기업들의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금조달액 추이
(단위 : 억 달러) ※ 1분기 기준 ※ 출처: 블룸버그



中 정부 서릿발에 기세 꺾인 亞 IPO

1분기 IPO 조달액 56조 사상 최대 “엔트 풀 날라” 중소기업 상장 줄포기 ‘76곳 취소’ 달아오른 시장에 찬물

올해 아시아 기업공개(IPO) 시장이 막대한 유동성에 힘입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중국 IT 기업들의 정부 눈치 보기에 그 열기가 식을 전망이다.

아시아 기업들은 올해 1분기 기업공개(IPO)를 통해 493억 달러(약 56조 원)를 조달했다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4% 급증한 것이며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지난 분기 전 세계 IPO 규모도 215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 합병이 물밀듯이 나오면서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의 호황을 주도했다.

아시아 시장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려는 각국의 공격적인 부양책 혜택과 경기회복 기대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전망은 그리 좋지 않다. 블룸버그는 “그동안 IPO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고부가가치의 기술주와 헬스케어 관련 종목이 둔화 주기에 접어들고 미국의 스팩에 대한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새 IPO에 대한 전망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아시아 IPO 시장은 추가적인 압력에 직면했다. 이 지역 IPO 시장을 지

배하는 중국 IT 기업들이 안 좋은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그룹홀딩 산하 세계 최대 핀테크 업체인 앤트그룹의 370억 달러 규모 IPO를 중단시킨 후 현지 IT 기업들이 당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FT 분석에 따르면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상하이 커쥬안(영문명 스타마켓)에서 지난달 76개사가 IPO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다.

2019년 7월 출범한 스타마켓은 앤트가 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 IPO를 무기한 보류했던 지난해 11월까지 IPO를 중도 포기한 기업이 12개사에 불과했지만, 지난 달에는 누적 수치가 180곳을 넘었다.

중국 투자은행들은 상하이와 홍콩에서의 앤트 이중상장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나서 스타마켓에 상장하려는 기업들이 더 엄격한 규제 요구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기업들의 사업구조 등에 대해 까다로운 질문들을 엄청 많이 하기 시작했다”며 “경영진의 모든 개인 은행 계좌 내역도 공개해야 하며 3만 위안(약 515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도 설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제공업체인 저장치스테크놀로지는 증권 당국으로부터 무려 28개의 질문 공세를 받고 나서 지난달 스타마켓 IPO 신청을 철회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자율차’ 호언하던 웨이모 CEO 결국 퇴진

“자율주행 기술 생각보다 어려워” 과대광고 논란 속 5년 만에 사퇴

구글 모회사 알파벳 산하 웨이모의 존 크래프치(사진) 최고경영자(CEO)가 약 5년 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자율주행차의 씩씩한 현실을 보여줬다.

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크래프치 CEO는 전날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가까운 시일 내에 웨이모 CEO직에서 물러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물러난 뒤에는 테케드라 마와키나 최고운영책임자(COO)와 디미트리 돌고프 최고기술책임자(CTO)가 공동 CEO에 올라 지휘봉을 잡기로 했다. 크래프치는 여전히 웨이모 고문을 맡는다.

웨이모는 2009년 출범한 미국 구글의 자율주행차량 사업부가 전신이며 2016년 분리·독립해 구글의 형제 회사가 됐다. 크래프치 CEO는 미국 포드와 한국 현대차 미국법인 CEO 등을 거쳐 2015년 입사, 이듬해부터 웨이모의 CEO로 재직해 왔다. 그는 웨이모의 리브랜딩, 파트너십, 외부 자금조달 등을 진두지휘하면서 회사 발전을 이끌어 좋



은 평가를 받아 왔다.

CNBC는 그의 일선 후퇴가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희망과 과대광고의 현실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미국 리서치 업체 가이드 하우스인사이드의 샘 아무엘사미드 수석 애널리스트도 “지난 1년 반을 살펴보면,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기업 안에서 현실화가 훨씬 더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었다”며 “사람들이 올해까지 거의 모든 곳에 로보택시가 다닐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은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017년만 하더라도 크래프치 CEO는 전문가 대부분이 자동차의 완전 자율화 시기로 예상했던 2020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자신했다. 그는 당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웹 서밋에서 “완전 자율주행차가 여기에 있다”

며 “2020년이 아니라,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완전 자율주행 일정이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웨이모는 열광적인 어조를 자제하기 시작했다. CNBC는 2019년 “웨이모가 안전에 대해서 여전히 인간 운전자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와키나 COO도 같은 해 한 콘퍼런스에서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과대광고가 관리하기 힘든 수준이 됐다”고 토로했다.

웨이모가 포함된 알파벳의 ‘기타 베팅’ 부문은 지난해 영업손실이 44억 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알파벳의 끊임없는 투자에도 웨이모는 외부에서 지금까지 32억 5000만 달러를 수혈해야 했다.

CNBC는 “공공 도로에서 2000만 마일(약 3219만 km) 이상 주행하고 시물레이션에서 200억 마일을 주행하는 등 웨이모는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다른 회사들을 앞서고 있다”며 “하지만 자율주행 시대가 실제로 오기까지 그 규모를 확장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병에 소변” 아마존 “그걸 민냐” 조롱했다 역풍

배달기사 노조 결성 투표 앞두고 파문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배달기사에 대한 회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비판을 조롱으로 맞받아쳤다가 역풍을 맞았다. 회사는 곧바로 사과에 나섰지만, 미국 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마크 포칸 미국 하원의원은 지난달 24일 “아마존 택배 노동자들이 시간당 15달러(약 1만6900원)의 임금을 받으며,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 트럭에서 빈 병에 오줌을 누고 있다”는 트위터 트윗을 올리면서 아마존에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아마존 택배기사들은 시골 지역에서 화장실을 찾기 힘들 경우, 이 같은 방법으로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그나마 있던 공중화장실마저도 폐쇄된 곳이 많아지면서 이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에 아마존은 트위터를 통해 “빈 병에 오줌을 누는 것을 정말로 믿는 것이냐”라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도 아마존에

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관련 증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아마존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여기에 미국 탐사 보도 전문매체 인터넬트는 아마존 경영진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궁지에 몰리자 아마존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성명을 내놨다.

아마존은 성명에서 “해당 트윗 내용은 정확하지 않았으며 배송 기사를 고려하지 않고 화장실이 갖춰져 있는 주문 처리센터만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번 트윗 논란은 아마존 첫 노조 결성 투표 결과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달 30일 아마존의 옐라배마주 베서머 창고에서는 5800명 노동자의 노조 결성 찬반 투표가 치러졌다. 개표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표된다. 베서머 창고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방역 조치 미흡, 열악한 노동조건 등의 불만을 제기하다가 지난해 7월부터 노조 설립을 추진해 왔다. 투표 결과 노조가 결성되면 지난 27년간 무노조로 운영되던 아마존에 첫 노조가 생기게 된다.

김민은 기자 better68@



‘열차 탈선’ 부상자 찾은 차이잉윈 차이잉윈(가운데) 대만 총통이 3일 화롄 지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현장 인근 병원을 방문해 부상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화물차가 선로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대만 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가 일어났다. 지금까지 51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 188명 중 41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화롄/AP연합뉴스

수에즈 운하 물길 뚫리자 닷 올린 ‘소송전’

최초 원인 조사 배상책임 가릴 듯

전 세계 물류 흐름을 가로막았던 수에즈 운하 정체 사태가 완전히 해소됐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사마 라비 수에즈운하관리청(SCA) 청장은 이날 성명에서 거대 컨테이너선 에버그린호 좌초 이후 수로에서 통항 재개를 기다리고 있던 400여 척의 선박이 모두 통항을 끝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도 422척의 대기 선박 중에서 61척이 이날 마지막으로 운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선박이 수로에 진입하는 등 이동이 정상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해상운송 산업에 막대한 압박을 가했던 12일간의 사태가 마무리됐다.

앞서 중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이동하던 에버그린호는 지난달 23일 갑작스럽게 불어온 강한 바람으로 선체



수에즈운하가 재개통된 가운데 이집트 이스마일리아 인근의 운하 구간으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컨테이너선 1척이 지나가고 있다. 이스마일리아/로이터연합뉴스

가 항로를 이탈, 바닥과 충돌하면서 수에즈 운하 한가운데 좌초했다. 이 사고로 길이 400m, 폭 59m, 총톤수 22만 4000톤에 달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해상루트를 막아 버리게 됐다.

세계 화물의 약 15%가 통과하는 핵심 길목이 마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혼돈에 빠졌다. 특수 구난팀의 대규모 준설과 예인작업을 통해 좌초된 배를 재부양하는 데에만 일주일의 걸렸다. 그리고 약 12일 만인 이날 선박 정체 현상이 해소되면서 통항이 완전히 정상화됐다.

통항은 정상화했지만, 이번 수에즈 운하의 마비로 인한 손해가 막대한 만큼 전문가들은 추후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의 해운산업전문지 로이스트리트는 이번 사고로 인해 매일 90억 달러(약 10조2000억 원) 규모의 화물 운송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분석했다. 시간당 약 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현재 이번 좌초를 둘러싸고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SCA는 지난달 31일 착수한 조사 결과가 수일 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변효선 기자 hsbyun@

쌍용차 법정관리 들어가면 산은 지원 불투명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이번주 10년 만의 회생개시 가능성...관리인 예병태 사장 투자 못받아 채권단 논의 어려워 '기안기금'도 해당 안돼

인수가 무산된 쌍용자동차가 사실상 법원의 판단으로 생사를 결정짓게 됐다. 법정관리가 현실화되면 쌍용차는 '법원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기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지원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쌍용차의 회생 계획안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산은의 지원은 쌍용차가 예정대로 HAAH오토모티브의 신규 투자를 받고 단기법정관리(P플랜)에 도입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HAAH오토모티브 측은 지난 달 말까지 투자자의향서(LOI)를 보완하

지 않았고, 서울회생법원이 결국 법정관리 개시를 발표했다. 따라서 산은의 지원도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자자의향서조차 제출되지 않기에 지원 여부도 따져볼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지원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기안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당장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해 조성됐다. 쌍용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법정관리에 돌입하는 쌍용차에 기안기금을 투입하게 되면 '지원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쌍용차는 채권단이 아닌 법원에 따라 움직인다. 산

은 대표 채권자 역할에 머물 뿐, 쌍용차에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쌍용차는 HAAH오토모티브의 인수무산으로 연거푸 고난을 맞게 됐다.

법원의 회생개시 시점은 4·7 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이달 8~10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에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쌍용차는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관리인은 예병태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법정관리 개시를 진행한다고 하면서도 "쌍용차, 채권단,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인수·합병(M&A) 절차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도 여전히 HAAH오토모티브 측과의 투자 협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껏 HAAH오토모티브 측이 투자자의향서를 보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현 상황이 반전될 여지는 적다는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HAAH오토모티브는 채권단, 쌍용차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입국하지도 않았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쌍용차의 법정관리행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쌍용차는 유동성 위기로 지난해 12월 21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쌍용차가 기업 회생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따라 그동안 2차례에 걸쳐 회생개시 결정을 미뤘었다.

하지만 쌍용차가 끝내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자의향서를 내지 못하면서 법원은 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신임 금감원장 '官' 출신 올까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의 임기종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후임 원장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윤 원장의 연임설이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 속에 하마평만 무성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관(官)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선임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 원장은 다음달 7일을 끝으로 3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윤 원장 연임설은 금감원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노조와 대립 등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사그라든 분위기다. 하마평에 오른 인사 가운데 관료 출신으로는 정은보 한미방위비담금협상대사,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종호 청와대 전 민정수석 등이 거론된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개각 전망이 나오면서 금감원장 후임 인사가 개각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용범 전 차관이 금융위원장으로 이동하고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이 기재부장관이나 경제부총리를 맡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은보 대사(행시 28회), 김용범 전 차관(행시 30회) 등의 행시 기수를 고려하면 은성수 금융위원장(행시 27회)의 거취가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은 위원장이 개각 대상에 포함되면 후임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후보들이 행시 30회 이하라서 선배인 정 대사가 금융위하급 기관인 금감원장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행시 37회 출신의 김종호 전 민정수석이 차기 금감원장에 올 수 있다는 얘기도 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관료가 금감원장에 기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민간 출신이 금감원장에 올 거란 얘기도 들린다.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정재욱 전 KDB생명 사장, 최운열 전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올라왔다.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인 만큼 내부 인사인 김은경 처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윤 원장의 일을 마무리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원장 연임설이 아예 꺼져버린 불씨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마땅한 후임자가 없으면 연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금소법 이후 고객 상담 50분”...은성수 “간소화 방안 검토”

은행장 불만 목소리에 개선 약속 “다 읽어줄 필요 없어”
대출고객 한달간 같은 은행서 펀드 가입 금지도 재검토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장들을 소집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은행장들은 가감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2명과 함께 금소법 시행 후 혼란에 대한 의견을 정취하기 위해 총 9개 은행 CEO를 만난 자리에서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불만이 많았던 내용은 '썩기' 방지를 위한 구속성 관련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것이었다. 고객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전후로 한달간 펀드,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 가입이 일괄 제한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가입을 원하는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은행장은 “월 납입금이 대출 금액의 1%를 넘어가면 구속성 판매 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규정 때문에 대출 이후 자발적으로 펀드 등 상품에 가입하고 싶은 고객

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므로 이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소법은 대출을 빌미로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금융기관의 '썩기' 관행을 막기 위해 투자성·보장성 상품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재무자'로 넓혔다. 이로 인해 은행이 대출 실행 일 전후로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투자성·보험성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금지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진짜 고객이 필요해서 가입하는 것과 구속성 판매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이 자발적 의사로 필요에 의해 펀드 등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 이를 구분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설명 의무 강화로 인한 현장 혼란도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금소법 시행으로 설명 의무가 강화되면서 은행원들이 상품 관련 내용을 일일이 고객에게 읽어주느라 가입 시간이 길어져 고객 불편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최근 '설명서를 전부 안 읽어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다수의

〈금융위원장〉



은성수(오른쪽 첫 번째) 금융위원장이 1일 은행권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장들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상품설명서를 읽어주는 것과 관련해 전체를 다 읽어주는 걸 모범사례로 소개했다가 법 시행 이후엔 ‘다 읽어줄 필요는 없다’고 안내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읽어줘야 한다든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은행장들은 “현장에서 좀 더 단순하게 하고 싶어도 겁나서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한다”는 불만을 전달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만 핵심 설명서를 교부하고 설명하게 해 달라”, “금소법 이후 평균 40~50분 걸리는 고객 상담 시간 단축을 위해 핵심 설명

을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소법 시행으로 도입된 '위법 계약 해지권'과 관련한 의견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금융사가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10일 이내'로 돼 있는데 너무 짧다”며 이를 '10영업일 이내'와 같이 현실성 있는 기한으로 설정해달라는 건의도 이어졌다.

이날 금감원은 “오는 9월까지 제도 기간을 쬐는데 그때까지는 검사하더라도 큰 틀에서 할 것이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을 테니 제도 기간 스스로 정비하며 시스템을 만들어가달라”고 당부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우리카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김정기(왼쪽) 우리카드 사장이 2일 환경경영시스템 국제 표준규격 'ISO 14001'을 획득하고 우리카드 광화문 본사에서 정의식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원장과 ISO 인증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카드

‘분할상환’ 전세대출 5억으로 한도 늘린다

SGI서울보증, 신규상품 협의

보증 한도를 5억 원까지 높인 원금 분할상환 방식 전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새로운 전세 보증을 공급하기로 하고, 시중은행과 상품 출시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의 한도를 5억 원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10월 말 출시한 분할상환 전세 보증의 한도가 2억2200만 원인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아진 수준이다.

통상 전세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 시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구조여서, 대출 원금이 줄지 않아 늘 같은 이자를 내야 한다.

그런데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상환하면 대출 원금이 감소하게 돼 이자 부담도 적어진다.

전세 대출 분할상환을 통한 비교세, 소득공제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이자소득에 14%의 세금이 붙는 예금이나 적금 대신,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원리금 상환 비용은 연말정산 때 지출로 인정되므로, 원리금 납부액의 40%에 대해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한도 확대를 통해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혜택을 주는 행정지도도 예고한 상태다. 서지연 기자 sjy@

봄바람 탄 K조선, 글로벌 선박 수주 10배 늘었다

1분기 친환경 수요 증가 등 호세 작년 대비 점유율 14% → 52% 대형업체 수주액 총 14兆 육박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올해 1분기 작년의 10배에 달하는 선박을 수주했다. 수주 점유율도 절반을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었던 글로벌 선박 발주 시장이 살아난 데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해서다.

경기 회복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수주 릴레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4일 영국 조선·해운 시장 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에서 총 1024만CGT(표준선 환산톤수·323척)의 선박이 발주됐다. 이 가운데 우리나

라는 532만CGT(126척)를 수주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진했던 작년 1분기(55만 CGT)와 비교했을 때 수주량이 10배로 급증했다. 14%에 그쳤던 수주 점유율도 올해 1분기 52%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가져간 것이다.

이런 호실적은 대형 조선업체 수주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세계 1위 조선업체인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1분기 총 68척, 55억 달러(해양플랜트 제외)를 수주했다. 연간 수주 목표액(149억 달러)의 37%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대만 선사 에버그린으로부터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한 번에 수주하는 등 현재까지 총 42척, 51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 중이다. 벌써 올해 목표액(78억 달러)의 65%를 채웠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수주한 초대형 유조선(VLCC) 10척을 포함해 총 19척(17억9000만 달러)을 수주해 올해 목표(77억 달러)의 23%를 달성했다.

대형 조선사들의 올해 1분기 수주액을 모두 합하면 14조 원에 육박한다.

중형 조선사들도 선전하고 있다. 대한조선은 최근 그리스 선사로부터 아프리카급 석유제품운반선 1척, 원유 운반선 1척을 수주하는 등 1분기에 선박 8척을 수주했다.

수주 증가는 컨테이너선 운임 상승 등 글로벌 발주 환경이 호전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전 세계 컨테이너선의 운임지표인 컨테이너선 운임지수(SCFI)는 지난달 26일 2570.68포인트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889포인트)과 비교했을 때 3배 가까이

올랐다.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에 친환경 선박 발주가 증가한 점 또한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했다.

중국선박공업은 프랑스 선사 CMA-CGM이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2만3000TEU(1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 9척 인도를 기술 역량 부족으로 1년 이상 지체시킨 바 있다.

최근 수에즈 운하에 좌초된 에버기븐호는 일본 조선사가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사들의 수주 릴레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선주들이 발주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수주 릴레이가 계속된다면 올해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작년과 달리 수주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韓-中 합작사’ 중한석화, 하반기 신규설비 전면 가동

SK중화-시노펙, 7400억 투자 연산 에틸렌 등 생산량 40% ↑



중국이 완료된 중한석화의 에틸렌 설비.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중국 최대 석유기업인 시노펙이 2019년 합작해 설립한 중한석화가 올해 하반기까지 신규 증설하고 있는 석유화학 설비를 완공한다고 4일 밝혔다.

중한석화는 2017년 10월 △에틸렌 30만 톤 △폴리에틸렌 30만 톤 △폴리프로필렌 30만 톤 △부타디엔 6만 톤 등의 석유화학 설비 확대를 위해 총 7400억 원 규모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한석화는 작년 12월 에틸렌 설비 증설을 완료해 첫 가동에 성공했다. 이 설

비는 현재 90%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폴리프로필렌 설비와 부타디엔 설비는

올 3월 완공해 차질없이 가동 중이다.

폴리프로필렌 설비에는 기존 제품과 비교해 강도를 크게 높인 고부가 화학제품 ‘고결정성 폴리프로필렌(HCPP)’을 생산할 계획이다.

폴리에틸렌 설비는 올해 6월까지 증설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부터는 100% 가동할 계획이다.

중한석화는 현재 증설하고 있는 석유화학 생산 설비가 전면 가동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연산 에틸렌 110만 톤, 폴리에틸렌 90만 톤, 폴리프로필렌 70만 톤, 부타디엔 19만 톤 등 총 300만 톤 규모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기존 중한석화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량인 220만 톤 보다 약 40% 늘어나는 것이다.

석유화학업계는 중한석화가 이번 석유화학 설비 증설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화학제품 시장에서 수혜를 입는다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에틸렌 가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등 대외적 변수로 공급 부족을 겪으며 높아지고 있다. 에틸렌 가격은 지난해 4월 기준 톤당 399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 3월에는 톤당 1133달러까지 치솟았다.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은 “SK종합화학은 이번 설비 증설을 완벽히 마무리하는 데 이어, 앞으로도 한중 산업 협력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 확대해 양사 기업까지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한화, 삼성출신 장세영 영입 케미칼 신사업 발굴 시너지

한화그룹이 삼성전자 임원을 지낸 40대의 여성 재료·소재 분야 전문가를 부사장급으로 전격 영입했다.



4일 한화솔루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달 초 장세영(사진) 전 삼성전자 상무를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장 부사장은 한화솔루션 내 새로 만들어진 NXMD(Next Generation Materials & Devices) 실장을 맡아 차세대 전자재료와 부품 분야 신사업을 발굴한다.

한화솔루션의 케미칼 사업 부문에 시너지를 내겠다는 취지다.

1974년생인 장 부사장은 경기과학고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재료공학으로 학사와 석·박사를 마친 소재 분야 전문가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무선사업부에서 갤럭시 시리즈의 배터리 개발을 맡았으며, 2013년 당시 삼성전자에서 드물게 30대 여성 임원으로 발탁됐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삼성 ‘네오 QLED’ 신기술 전세계 알린다

온라인 테크 세미나 지역별 개최

삼성전자는 삼성 TV의 신기술을 소개하는 온라인 ‘테크 세미나’를 지역별로 진행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테크 세미나는 전 세계 주요 영상·음향 분야 미디어와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삼성 TV의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주요 행사다.

지난달 31일을 시작으로 5월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테크 세미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해외 각 지역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양방향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웨비나(Webinar)’ 방식으로 진행된다.

북미·유럽·중동·서남아·아프리카·중남아시아·동남아·중남미 등 글로벌 전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올해 참석자 규모는 500여 명으로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세미나의 핵심 주제는 보다 진화한 ‘네오 QLED’의 화질과 현존 최고의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크로 LED’의 기반 기술이다. 특히 네오 QLED에 대해서는 업계 최고 수준의 화질을 구현하는 3가지 핵심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송영록 기자 syr@

아디다스 품은 ‘갤럭시 버즈 프로’

삼성전자 홈피·카카오 쇼핑 통해 6000개 한정 판매

삼성전자가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기획한 ‘갤럭시 버즈 프로 워드(with)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스페셜 팩’을 7일부터 판매한다.

‘갤럭시 버즈 프로 워드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스페셜 팩’은 △‘갤럭시 버즈 프로’ △아디다스 스냅백 케이스 △2021년 새롭게 출시된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Stan Smith)’ 운동화 구매 쿠폰 △맞춤 제작된 아디다스 전용 스마트폰 테마로 구성된다.

‘갤럭시 버즈 프로’는 팬텀 블랙·팬텀 실버·팬텀 바이올렛 등 3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스페셜 팩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없는 깨끗한 미래를 향한 친환경 노력 관점에서 시작했다.

‘갤럭시 버즈 프로’는 페플라스틱 재생 성분이 20% 포함된 PCM(Post-Consumer Materials) 소재를 사용해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디다스를 대표하는 운동화 ‘스탠 스미스’는 50% 재활용 소재를 담은 프라임그린(Primegreen) 갑피를 적용해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더했다. ‘갤럭시 버즈 프로’에 나만의 개성을 더할 수 있는 아디다스 스냅백 케이스도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



삼성전자와 아디다스 오리지널스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기획한 ‘갤럭시 버즈 프로 워드 with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스페셜 팩’.

해 제작됐다.

이 밖에 잠금화면부터 아이콘, 메시지, 전화 등 스마트폰의 인터페이스를 아디다스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감성으로 맞춤 제작한 스마트폰 테마도 이용할 수 있다.

‘갤럭시 버즈 프로 워드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스페셜 팩’은 7일 오후 7시 30분부터 삼성전자 홈페이지와 카카오 쇼핑 라이브를 통해 6000개 한정 판매된다. 가격은 27만9000원이다.

송영록 기자 syr@

LG, 오브제컬렉션 얼음정수기 냉장고 출시

LG전자가 구형(球形) 얼음을 만드는 신기능을 탑재한 LG 오브제컬렉션 얼음정수기 냉장고를 5일 출시했다.

신제품은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 먼저 선보여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차별화된 크래프트 아이스(Craft Ice) 기능을 국내 최초로 탑재했다. 크래프트 아이스는 지름 약 50mm의 구형 얼음이다. LG 오브제컬렉션 얼음정수기 냉장고를 쓰는 고객은 호텔 라운지나 대형 바 등에서 쓰이는 고급스러

운 구형 얼음을 집에서 즐길 수 있다. 크래프트 아이스는 크고 천천히 녹기 때문에 각테일, 위스키, 레모네이드, 아이스커피 등 시원한 음료를 집에서 제대로 즐길 수 있게 해주며 음료의 풍미를 더해준다.

하단 냉동칸에서 크래프트 아이스를, 상단 얼음 디스펜서에서 각얼음과 조각얼음을 각각 이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업그레이드된 3단계 안심정수필터도 적용했다. 송영록 기자 syr@

경총, 단체교섭 체크 포인트 발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 ‘2021 단체교섭 체크 포인트’를 발간해 회원사 등 주요기업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해당 책에서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노조법 사항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조정 및 고용보장 △원청의 사용자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등을 올해 단체교섭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예상했다.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선 △단체협약이 비종사 조합원에게 일괄 적용되지 않도록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재직 조합원 한정’으로 명시할 것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할 것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무급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도입할 것 등을 제시했다. 유연근무제에 대해선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한 소득감소는 임금삭감이 아님에 유의 △임금보전 요구 관련 교섭 시 생산성 제고와 연계해 대응 △유연근무제 관련 교섭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임금보전 방안 신고 등 법적 의무 준수 등을 들었다. 노우리 기자 we1228@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하나로 힘을 모읍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하나금융그룹의 첫걸음]
BIG STEP FOR TOMORROW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과
친환경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기술이
하나가 되어야 지구를 지킬 수 있기에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의 힘으로
지구를 지키는 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ESG [BIG STEP FOR TOMORROW]

STEP1 탈석탄 금융, 탄소중립 추진으로 탄소 제로 이행에 동참 >> STEP2 ESG 금융 활성화로 금융의 환경 및 사회적 기여 확대 >> STEP3 투명한 ESG 정보 공개를 통한 이해관계자 신뢰도 제고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KAI, 2030년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

안현호 사장 간담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30년 매출 10조 원을 달성해 아시아 대표 항공우주기업으로 거듭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현호 KAI 사장은 지난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10년 후 KAI가 나갈 방향을 정했다. 매출 10조 원, 아시아 제1의 항공우주기업, 전 세계 항공우주산업 20위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KAI는 차세대 주력 사업에서 3조 원, 기존의 군수 및 민수사업에서 7조 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5대 신규 미래사업으로는 △미래 에어 모빌리티 △유무인 복합 체계 △위성·우주 발사체 △항공방산 전자 △시물레이션 및 소프트웨어를 제시했다.

안현호 사장은 특히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안 사장은 “KAI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UAM을 제일 잘하는 업체”라며 “비행체

“군·민수 사업 등 매출 10兆 달성 아시아 대표 항공우주업체 도약 우주 발사체·항공 방산 전자 등 향후 5년간 요소 기술 확보 집중”

를 제일 잘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미 UAM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직이착륙, 무인 및 자율 이착륙에 대한 핵심역량이 있다”면서 “다만 브랜드 싸움에서 KAI가 표준을 주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누구와 협력을 도모할지 모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KAI는 향후 5년간 요소 기술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분산추진 방식의 추력기, 제어기 등에 대해 자체 R&D에 착수했으며 미래 비행체와 관련해 서울대 등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항공기도 2029년까지 실증기를 개발할 계획이며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수소연료전지의 통합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전기항공 기술 확보를 추진할 예정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장기 비전 및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다. KAI는 민간에서 우주 분야를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글로벌 ‘키 플레이어’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안 사장은 “기존에 하던 중대형 위성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출사업까지 하겠다는 게 목표”라며 “동남아시아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핫’한 게 초소형 위성이다. 특히 제조보다 위성을 이용한

서비스에서 10배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성을 통해 얻은 자료를 해석하는 서비스를 위해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등을 협상하고 있다. 5~7월쯤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사장은 “KAI의 최대 강점은 기술력이다. 정말 자부해도 되는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전투기 개발에서 7위 정도 된다”고 강조했다.

고정의 부분은 향후 20조 원 규모 수주를 계획 중이다. KF-X는 이달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내년 초 초도비행을 앞두고 있다. 회전익 부분은 소형무장헬기(LAH), 파생형 개발 등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향후 10년간 10조 원 이상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KAI는 미래를 위해 향후 5년간 2조2000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 중 1조 원은 신기술 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핵심장비 설치 등에 30%, 유망기업 인수와 전략적 제휴에 25%를 할애할 방침이다.

이주혜 기자 winjh@

‘LG 전조기’ 과장 광고 공정위, 제재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전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논란과 관련해 부당광고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4일 LG전자가 거짓·과장 등 부당한 광고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전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LG전자는 2018년 5월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전조기를 출시하며 자동세척 기능이 언제나 작동해 건조기 청소가 필요 없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이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쏟아졌고 2019년 7월 건조기를 구매한 247명이 구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LG전자는 광고에서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을 홍보했지만, 콘덴서 바닥에 1.6~2.0l의 응축수가 모여있거나 함수율(의류가 물을 머금은 정도)이 10~15%일 때만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호랑나비 생활건강
HORANGNABI HEALTHCARE

녹용과 홍삼, 16종 활력식물추출액까지

호랑나비생활건강 십전녹용홍삼

생식 개발자 김수경박사가 만들고 김흥국이 인정한 호랑나비생활건강 십전녹용홍삼!
러시아산 녹용과 국내산 6년근 홍삼에 더해 활력을 위한 16가지 재료를 정성껏 선별해 담았습니다.

홍삼 + 녹용 + 16종 활력식물

홍삼 + 녹용 + 16종 활력식물 (대추, 헛개나무, 감초, 복령, 천궁, 황기, 당귀, 작약, 진피, 뽕잎, 두충, 동충하초, 맥문동, 오미자, 숙지황, 백출)

“김수경 박사가 만들고 김흥국이 인정한 황제입니다”

귀한 녹용과 홍삼, 16종 활력식물추출액의 황금배합, 호랑나비생활건강 십전녹용홍삼으로 명품 활력을 드립니다

엄격한 관리 제조 최고급 원료 설계를 기초로 탄생한 명품 십전녹용홍삼
러시아산 녹용 조식이 조밀하고 크기가 큰 러시아산 녹용 분말 (입자크기 10~15마이크로미터)
6년근 국내산 홍삼 6년근 국내산 홍삼근 70%, 홍미삼 30%의 비율로 고품분 60% 이상
16종 활력식물추출액 백출, 맥문동, 동충하초, 헛개나무, 감초 등 국내산 원료

특별 할인 김수경 박사와 김흥국이 함께하는 가족건강 프로젝트!
십전녹용홍삼 1박스 158,000원 ▶ 43,000원×3개월 무이자
● 1박스 : 1,500ml (50ml X 30포)

3개월 카드 무이자 할부 | 온라인 주문 www.arambi.kr | 아람비스토어 | 주문 및 문의전화 080-469-5555

SiC 사업 순손실 332억에도 ‘함박웃음’ 짓는 SK실트론

전력 반도체 ‘뉴딜’ 핵심 부상 정부 “미래 혁신” 지원 사격 시설 고도화 등 시장 선점 박차

웨이퍼 업계 최초로 탄소 발자국 인증을 취득한 SK실트론 웨이퍼 제품.

전력 반도체가 ‘그린 뉴딜’의 차세대 핵심 부품으로 주목되며 정부가 관련 산업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해당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SK실트론 역시 우호적인 시장 환경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인수 1년 차 소폭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시장이 초입 단계인 만큼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 고도화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4일 SK실트론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는 신사업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Silicon Carbide Wafer, 이하 SiC) 부문에서 95억 원의 매출과 332억 원가량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순손실이 낮지만, 이는 시장 점유율 늘리기를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전력 반도체 시장이 이제 막 개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해 기반을 다져야 하는 시점이라는 뜻이다.

SK실트론은 전력 반도체 웨이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2019년 9월 미국 듀폰의 SiC 웨이퍼 사업부를 약 5400억 원에 사들였다.

지난해 2월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약 1년간 SiC 웨이퍼 상용화를 위한 R&D와 생산시설 고도화가 이뤄졌다. SK실트론 관계자는 “기존 실리콘 웨이퍼 사업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회사의 미래 동력인 SiC 부문에 전폭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SiC는 기존 웨이퍼 소재인 실리콘(Si)과 비교해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난 3대 신소재(실리콘카바이드, 질화갈륨, 갈륨옥사이드) 중 하나다. 이러한 신소재 웨이퍼로 만든 전력반도체가 차세대 전력 반

도체다.

해당 제품이 주목받는 이유는 ‘많은 양의 전력을 소화할 수 있으면서도, 무게는 가벼워져야 한다’라는 전기차 산업의 숙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를 인식하고 최근 전력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섰다. 1일 열린 ‘제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 AI, 5G 등 신기술 구현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성장 분야 활성화를 위한 핵심 부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력 반도체 웨이퍼 시장에서 SK실트론은 미국 크리, II-VI(투시스)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크리와 투시스가 각각 40%, 35% 등으로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회사 측은 올해부터 신규 수주가 본격화하며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업체들의 경우 웨이퍼를 만들면서 동시에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는 사업 구조인데, SK실트론의 경우 웨이퍼만 만들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큰 손’인 인피니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의 고객사와 더욱 돈독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TSMC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내세워 많은 팹리스업체들을 고객으로 유치했듯, SK실트론도 비슷한 전략으로 수주 전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QR코드 셀프 체크인, 휴대폰으로 문 열고 온도 조절

가보니 야놀자 자동화 솔루션 '와이프릭스'

설레는 여행길, 숙소에 도착했다. QR코드로 5초 만에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올라가면서 모바일로 전송된 링크에 접속해 방 불을 미리 켜고, 짐과 기념품으로 양손이 무거워도 걱정 없다. 문을 미리 열어둘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 야놀자가 개발한 호텔 자동화 솔루션 '와이프릭스'와 함께라면 가능한 일이다. 4일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야놀자 쇼룸에서 와이프릭스를 체험해 봤다.

와이프릭스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통합한 호텔 자동화 솔루션이다. 예약과 객실 관리 등 분리돼 있던 호텔 운영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호텔처럼 꾸며진 쇼룸에서 가장 처음 만난 와이프릭스 제품은 호텔 셀프 체크인 기기인 '와이프릭스 키오스크'다. 온라인 예약 채널과 데이터를 연동해 비대면으로 체크인할 수 있는 기기다.

체크인 뒤 폰에 전용 페이지 떠 열쇠 없이 호텔 전체 이용 가능 엘리베이터 호출·청소 요청도

키오스크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였다. 발급받은 QR코드를 체크인 기기에 갖다 대니 5초 만에 체크인이 끝났고 객실 카드도 순식간에 발급됐다. 예약 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개인 정보가 호텔 객실 서비스와 실시간으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키오스크 옆에는 수건과 가운이 채워진 캐비닛이 설치돼 있었다. 샴푸·린스, 보디 샤워 등 목욕 제품과 간단한 간식을 구매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도 놓여 있다. 객실에 비치된 수건이 부족할 경우 투숙객이 직접 와서 자유롭게 꺼내 갈 수 있고, 자판기를 통해 모자란 편의용품도 구매할 수 있다.

야놀자는 이에 더해 예약 시 편의用品을 구매하면 체크인과 동시에 관련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환



서울시 강남구 야놀자 본사에 있는 쇼룸에 설치된 와이프릭스 키오스크와 아메니티 스프링클러. 이 기기를 이용하면 5초 만에 셀프 체크인이 가능하다.

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데이터가 남으니, 같은 호텔을 다시 방문할 때에는 이전 투숙 때 구매했던 용품을 다시 구매할 수 있다.

체크인을 마치면 투숙객 휴대전화로 링크가 전송된다. 이 링크에 접속하니 객실 출입부터 실내 조도까지 모두 제어할 수

있는 투숙객 전용 페이지가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출시한 클라우드 기반 객실관리 솔루션 '와이프릭스 GRMS'이다.

링크를 통하면 '키리스(Keyless)' 방식으로 호텔을 이용할 수 있었다. 열쇠 없이 핸드폰만으로 호텔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것.

해당 페이지에서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카드를 접촉하지 않고도 엘리베이터로 객실 층까지 이동할 수 있어 편리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부르거나 객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객실 청소 등 서비스 요청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었다. 실내조명·온도 조절 등 객실 내부도 제어할 수 있어 호텔 밖에서도 객실 관리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호텔도 투숙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전용 서버나 기기가 필요 없어 운영 비용이 절감되는 데다 객실 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였다. 호텔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층마다 청소를 요청한 객실을 가려낼 수 있었다. 층마다 돌아다니며 객실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야놀자 관계자는 "올해 와이프릭스의 글로벌 론칭을 통해 세계 1위 클라우드 기반 호스피탈리티 솔루션 기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이대원 기자 leedw@



박명규(왼쪽) 에듀윌 대표가 에듀윌의 새로운 비를 직원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에듀윌

“면도기 3년 만에 안착, 생활소비재 구독경제 확대”

인터뷰

김동욱 와이즐리 대표

구독경제가 최근 수년간 유통경제 분야에서 주요 화두다. 구독경제는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기존 유통 구조 대비 비용은 낮추고 편의성(배달)은 높였다.

와이즈리리는 국내 대표적인 구독경제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구독경제 아이템은 면도 용품이다. 미국의 달러웨이브클럽(DSC)가 벤치마킹 대상이지만 고객 맞춤형이라는 차별화가 강점이다. 앞으로 목표는 스킨케어, 헤어케어 브랜드를 구독경제 플랫폼에 띄우는 것이다.

김동욱(사진) 와이즐리 대표는 4일 강남 본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면도기 등 면도 용품에 이어 현재 스킨케어 제품(브랜드명 오픈워크)은 출시된 상태이며 지난해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다”며 “헤어케어 제품은 5월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와이즈리리의 면도기 구독경제가 2018년 이후 3년여 만에 자리를 잡아 가는 가운데 신규 아이템이 추가된 셈이다. 주목할 점은 단순히 싼 값에 구독경제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디자인 기술력(디자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와이즈리리의 판매 아이템은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이뤄진다. 와이즐리의 개발팀이 면도기를 디자인하고 독일의 OEM 업체에 제품 생산을 맡긴다.



김동욱 와이즐리 대표는 “MZ세대를 적극 공략해 5년 이내에 국내 면도기 시장에서 1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와이즐리

독 OEM 생산, 가성비 입소문 스킨·헤어 케어 브랜드 띄울 것

정직한 시장생태계 조성 목표

와이즈리리는 한국인 맞춤형 면도기를 개발·판매하고 있다. 독일 OEM 제조사를 파트너사로 들 수 있었던 요인은 김동욱 대표의 과거 역량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25살 대학 재학 시절 글로벌 소비재 회사인 P&G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1년여 만에 퇴사 후 유아복 OEM 중개 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실패했지만 OEM 사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독일 면도기 OEM 업체와 파트너십에서 큰 재산이 됐다고 한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베인&컴퍼니 경력(27~29살)까지 더해지면서 그의 사업가

로서 역량은 더욱 커진 듯했다.

김동욱 대표는 “면도기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은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해왔다”며 “베인&컴퍼니 재직 시절 소비재·유통 업계에서 경험을 쌓았고, 면도날 가격의 불합리함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와이즈리리의 비전은 불합리한 생활소비재 시장을 바꿔 소비자들에게 정직한 시장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생활소비재는 중간유통, 독과점 등으로 인해 제조원가가 판매가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김 대표는 판매가의 80%가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정직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장기적인 비전은 전 세계인의 일상을 책임지는 “다음 세대의 P&G”다.

김 대표는 “와이즈리리의 핵심 전략은 사람마다 다른 생활습관에 맞춰 개인화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해 편리하면서도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또한 제품 가격은 제품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유통·마케팅비를 절감해 제품력과 낮은 가격에 투자하는 구조로, 고객에게 파격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인 가구 비중이 높으면서 가치 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MZ세대를 공략할 것”이라며 “당사 2020년 면도기 시장 점유율은 9.3%, 30대 고객 내에는 13.2%를 차지하며 전체 시장 내 4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와이즈리리는 5년 이내에 국내 면도기 시장에서 1위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좋은 인재가 행복한 기업을 만드는 것 또한 개인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

고종민 기자 kjm@

“비대면·온라인 신속 대응 20% 성장”

박명규 에듀윌 대표

구로·성남·부평서 '직업 교육' 새 BI 선보여 “내실 다질 것”

중형교육기업 에듀윌이 그 어느 때보다 숨 가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 비대면 온라인 환경 변화에 신속히 경영환경을 재편해 전년 대비 매출이 상승했다. 또 신규 BI 선포, 가치체계 리뉴얼 등 회사의 내실을 다지는 데 보다 주력했다. 앞으로의 10년은 리딩 브랜드로서의 영향력 강화도 꿈꾼다.

박명규 에듀윌 대표는 “1992년 창립한 에듀윌이 2022년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다”면서 “코로나19를 기회 삼아 앞으로 완전히 새로워질 미래 교육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부터 회사 안팎을 견고히 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듀윌은 지난해 온라인 설명회, 합격자 모임 등 기존의 대면 행사를 언택트로 빠르게 전환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20%대의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국비 무료교육 사업에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하고, 직업능력교육원 구로, 성남에 이어 부평 센터를 오픈했다.

오프라인에서도 독한 에듀윌 소방, 경찰 노랑진 및 부평학원과 공무원 노랑진학원을 개원하는 등 노랑진 학원가에도 신규 진출했다. 강남에는 취업 및 부동산 아카데미 문을 여는 등 코로나 상황의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성장과 투자를 지속했고 경기 위축에도 공격적인 확장을 멈추지 않았다.

외형적인 성과 외에 다부진 내실 다지기도 나갔다. 에듀윌은 미래지향적 글로벌 교육 브랜드로의 도약을 기원하며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선보였다. 신규 BI에는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도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를 성장을 의미하는 그래픽으로 표현했으며, 워드마크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간결한 영문서체로 변경했다.

에듀윌은 전용서체인 ‘에듀윌함격체’를 소개하고, 신(新) 가치체계도 공표했다. 기존 프레임의 맥락은 유지하면서 단순하고 임팩트 있는 표현 방식으로 리뉴얼했다. 대표적으로, 고객의 합격에 더 다가가기 위한 열정을 새로운 핵심가치인 ‘Wow!’, ‘Simple’, ‘Fast’로 담아냈다.

박 대표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토대로 현재의 제도, 시스템 그리고 조직문화 전반을 새 단장 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9월부터 ‘조직문화 프레임워크’ 구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듀윌은 탄력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조직의 똘치 근육을 스트레칭 한다는 의미의 ‘조직문화 스트레칭 캠페인’을 실시했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행동형 가이드를 제작, 배포했다. 행동형 가이드는 크게 ‘간소한 회의, 간결한 보고, 시원한 지시’로 요약할 수 있다. 회의는 간단히 30분 내로 끝내고, 소신껏 의견을 제시하며, 한 가지 이상 실행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대표는 “지난 30년간 기업의 성장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리딩 브랜드로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강조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LG U+, 5G 로봇으로 공기 관리

LG유플러스가 5G 상용화 2주년을 맞아 환경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전주시와 손잡고 자율주행 로봇을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작년 9월 전주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뒤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과 만성지구, 혁신도시 등 주거지역에 자율주행 로봇 6대와 고정형 대기측정기 20기를 투입했다. ‘환경관리 로봇’은 실시간으로 대기 정보를 수집하고, 무인순찰 중 획득한 환경정보를 5G 네트워크로 전달하고 분석한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최대 +50yd 더나가는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

BIG E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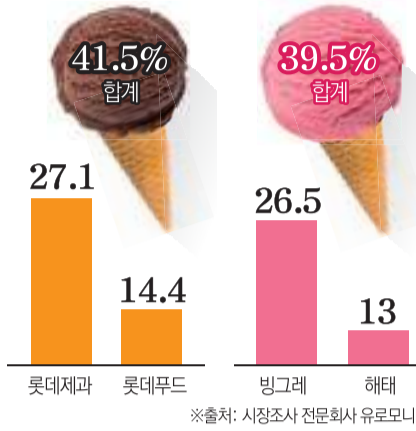
문의) 1544-8070

해태 품은 빙그레 vs 롯데연합 아이스크림 ‘달콤 살벌한 승부’

빙그레+해태 시장점유율 39.5%
롯데제과+푸드 41.5% ‘박빙’

오마이걸vs마미손 빅모델 경쟁
매운맛·편마케팅 신제품 대결도

해태+빙그레 vs 롯데제과+푸드 아이스크림 시장 점유율 (단위 : %, 2020년 기준)



아이스크림 시장이 양강 구도로 바뀌면서 벌써부터 성수기를 겨냥한 ‘빙과 전쟁’이 시작됐다.

빙그레가 지난해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하면서 기존 4강 체제였던 아이스크림 시장은 ‘빙그레+해태 vs 롯데연합(롯데제과+롯데푸드)’이라는 양강 구도로 재편됐다.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는 할인점의 저가 물량 공세 등으로 감소세지만, 이들 기업은 빅스타 마케팅 및 이색적인 신제품을 앞다퉈 선보이며 전쟁에 본격 나서고 있다.

4일 시장전문 조사회사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은 전년 1조6230억 원에서 1조5999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26.5%, 13%로 단순합산으로만 빙그레+해태는 39.5%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는 각각 27.1%, 14.4%로 롯데 연합의 시장점유율은 41.5%로, 그야말로 ‘박빙’인 셈이다.

빙그레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이 축소하고 있는데도 지난해 해태아이스크림 사업을 인수했다. 냉동제품(우유 및 유음료)과 냉동제품(아이스크림)으로 양분된 사업이 정체돼 있어 사업군 불몰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빙그레의 냉동 및 기타식품군(아이스크림·기타) 매출은 2010년 3055억 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3922억 원으로 10년간 4000억 원대를 돌파하지 못했다.

시장에서는 빙그레가 ‘해태 인수 효과’에 힘입어 올해 ‘1조 클럽’에 들 것으로 보

고 있다. 우선 빙그레가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콘 타입 아이스크림 시장에 해태가 강점을 지닌 만큼 인수 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해태 인수작업을 마친 결과를 반영할 때 올해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예상치는 각각 1조 1176억 원, 461억 원으로 추정되며 연간 매출액 1조 원을 넘어서는 첫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빙그레 매출은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가한 9591억 원을 기록했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해태아이스크림 영업이익이 2019년 30억 원 적자에서 지난해 소폭 흑자로 전환했고, 유례없는 긴 장마로 인해 부진했던 작년 3분기 냉동부문(별도)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영업이익도 개선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사는 벌써 매운맛 아이스크림 전쟁으로 1라운드에 돌입했다. 빙그레가 공식 소셜네트워크 계정을 통해 매운맛 아이스크림 ‘멘붕어싸만코’ 출시를 예고한 직후 롯데제과가 발 빠르게 ‘찰떡아이스 매운 치즈떡볶이’는 먼저 출시하면서다. 멘붕어싸만코는 만우절을 앞두고 한정판 120만 개로 편의점 유통망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신제품 경쟁도 뜨겁다. 롯데제과는 ‘메

론믹조스바’로 편마케팅을 강화한 독특한 신제품을 선보이는가 하면, 디저트 품목을 강화한 나뚜루 시그니처 매장을 여는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강화하고 있다. 대체육 및 비건 개발에 가장 공들이는 롯데중앙연구소를 필두로 나뚜루에서는 지난해 비건 아이스크림까지 출시했다. 이 제품은 출시 두 달 만에 누적 판매량 7만 개를 돌파하며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고 있다.

빙그레의 무기는 ‘빙그레우스’ 캐릭터 마케팅이다. 빙그레는 지난해 공식인스타그램을 통해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 ‘투게더리드리 경’ 등 자사 제품을 캐릭터화한 마케팅으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

양사의 경쟁은 ‘모델 마케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빙그레는 인기 걸그룹 ‘오마이걸’을 빙그레 모델로 발탁했다. 빙그레가 해태 인수 후 처음으로 펼치는 공동 마케팅으로, 슈퍼콘과 마루시리즈 두 제품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롯데푸드는 래퍼 ‘마미손’을 모델로 기용하며 맞불을 놓았다. 딸기를 활용한 돼지바 핑크와 마미손의 콘셉트가 잘 어울린다는 이유에서다. MZ세대가 열광하는 랩퍼의 이미지를 녹여내 장수브랜드의 보수적인 이미지를 깬다는 셈도 더해졌다.

빙그레 대 롯데연합군의 대결은 급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스크림·빙과류 시장의 이커머스 점유율은 4.6%로 유통채널 중 가장 빠르게 비중이 늘고 있다.

문경선 유로모니터 식품·영양 부문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아이스크림 시장은 코로나 집콕족 증가와 홈디제트류 일상화 등에 힘입어 지난 겨울 반짝 증가를 보였다”라면서 “빠른 배송으로 아이스크림을 편리하게 받아보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커머스 유통 증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이마트 ‘토마토 종합세트’

이마트가 4개의 방울토마토 품종이 한 팩에 담긴 ‘토마토 종합세트(1kg)’를 7일까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00원 할인된 6900원에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마트가 선보이는 ‘토마토 종합세트’는 대중적인 품종인 일반 방울토마토 1종, 대추방울토마토 1종을 비롯해 지난해와 올해 연달아 선보이는 신품종 이색 방울토마토 2종으로 구성됐다. ‘토마토 종합세트’에 들어가는 신품종은 △젤리마토 △별마토 △애플토마토 △허니토마토 등 총 4종이다.

사진제공 이마트

‘K-제약바이오’ 코로나로 종목 교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내 제약바이오업체들이 코로나19 진단키트부터 치료제와 백신, 유통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등 사업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직원들이 안동L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코로나19 백신을 검수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독감 백신 ‘스카이셀플루’의 생산을 일시 중단하고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카이셀플루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세포배양 독감 백신이다. 매출은 지난해 기준 약 1000억 원 규모다. 회사는 스카이셀플루를 대신할 국내 다른 제조사나 수입사의 독감 백신을 도입해 판매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으며,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은 기술이전 방식으로 생산할 예정

인 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명선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일라이릴리의 항체치료제가 1바이알당 1250달러임을 고려하면 렉키로나 공급 가격을 1000달러로 가정 시 매출은 최소 1조5000억 원, 영업이익률은 50% 내외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외에 백신 개발 가능성도 열려있다. 지난달 정기 주총에서 공식 은퇴한 서정진 전

SK바이오사이언스, 올해 독감 접고 코로나 백신 집중 코로나 치료제 출시 셀트리온, 백신 개발 가능성 열어

이다. 회사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공급 요청이 높아지는 상황이라 생산라인을 늘려서 더 많은 백신을 생산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독감 백신 대신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집중하면서 올해 실적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 백신의 수익성이 독감 백신보다 낮지 않다. 수익성이 더 좋을지는 추후 여러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올해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개발명 CT-P59, 성분명 레그단비맵·Regdanvimab)’ 출시로 바이오 신약을 처음 선보였다. 렉키로나는 임상 2상 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건부 사용 허가를 받아 57개 의료기관, 817명의 환자에게 투약됐다.

셀트리온의 렉키로나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유럽의약품청(EMA)에서 품목허가 전 사용권고 의견을 받으면서 수출 길이 열렸다. 렉키로나는 국내 공급 시에는 원가로 제공하지만, 수출 시 제값을 받고 판매할 예정이다.

회장은 “백신 기술주권에 문제가 생기면 백신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연매출 1조를 돌파한 씨젠은 이후 확보한 고객을 대상으로 분자진단 시약을 공급해 향후 수익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씨젠의 지난해 진단기기 연간 판매 대수는 약 1600대로, 이는 지난 10년간 누적 판매 물량에 달한다.

이 같은 수요에 힘입어 씨젠은 2025년까지 전 세계 분자진단 검사 생활화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사업 비전을 내놨다. 코로나19 이후 씨젠의 검사 장비를 갖춘 글로벌 고객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진단 제품 외에도 씨젠이 보유한 다수의 신드롬릭 진단 시약의 글로벌 진출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

천중운 대표이사는 지난달 29일 정기 주총에서 “전 세계 분자진단 생활 검사화를 위해 하나의 검사 장비만 있으면 씨젠만의 압도적인 동시다중 기술 기반 진단 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사 시스템을 윈(one) 플랫폼화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분자진단의 대중화”라고 말했다.

백미선 기자 only@

신세계백 케이스터디, 복순도가와 전배

신세계는 MZ세대의 놀이터 ‘케이스터디’가 전통주 브랜드 ‘복순도가’와 손잡았다고 4일 밝혔다. 전통주와 막걸리를 즐기는 젊은 고객을 겨냥해 특별한 컬래버레이션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이 만든 케이스터디는 요즘 패션계에서 가장 핫한 스니커즈와 스트리트 패션 아이템 등을 보여주는 분디샵

의 ‘숍 인숍’ 공간이다.

다양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는 케이스터디는 차별화된 콜라보레이션으로도 유명하다. 복순도가와 만난 케이스터디 한정판 체리블라썸 패키지는 봄 기운을 물씬 담았다. 뱃살이 훑날리는 듯한 케이스터디 로고 라벨을 부착해 친구, 가족, 연인과 즐길 수 있게 했다.

이번 케이스터디 협업 상품은 복순도



가의 대표 아이템인 손막걸리 3병과 보병백, 탄산이 터지는 느낌을 표현한 매트, 아날로그 감성의 일회용 카메라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롯데백화점 “우리가족 인생샷 선물합니다”

메이크오버 프로젝트 2탄 모집

롯데백화점이 5월 가정의 달에 앞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감성 충전 이벤트를 준비해 고객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한다.

롯데백화점은 롯데백화점 앱(APP) 및 홈페이지에서 내달 11일까지 메이크오버 프로젝트 2탄 ‘#우리가족_인생추억’ 참가자(10팀)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메이크오버 프로젝트’는 롯데백화점이 패션 브랜드 및 패션 메이크오버 전문 ‘더 뉴 그레이(THE NEW GREY)’와 함께

고객들에게 추억의 하루를 선물하는 이벤트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형 이벤트를 진행하는 대신, 최근 유행하는 메이크오버 챌린지에 백화점의 특성을 더해 이벤트화했다. 패션 트렌드와 브랜드 신상품을 소개하는 동시에 고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1탄으로 지난 가을 ‘우리 아빠 변신 챌린지’를 진행해 가족에게 멋진 의상과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은 2030세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메이크오버 프로젝트 2탄은 아빠 뿐만 아니라 엄마, 형제자매, 조부모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

모두 참여가 가능하게 참가 대상을 늘렸으며 당첨 혜택은 한층 강화했다. 블랙야크, 커버넌, 유니버셜 오버롤, 로우로우, 윌슨 등 패션 브랜드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신상 의류를 활용해 등산룩·캐주얼룩 등 다양한 컨셉으로 패션 메이크오버 촬영을 진행하고 의상을 선물한다.

이외에도 추억 저장 카메라(인스탁스 와이드300), 가족사진 촬영권 및 액자(한국후지필름), 가족여행 차량 렌탈권(현대자동차), 향수(딤티크) 등 행복한 시간을 위한 다양한 추가 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남주현 기자 jooh@

공수처, 수사 첫발도 떴기 전에 ‘삐걱’

1호 유력 ‘김학의 사건’ 처리 미숙 “주도권 상실” 비판 피의자 이성운 ‘특혜 조사’ 해명도 미흡... 논란 가중

조직을 정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검찰과의 힘겨루기, 공정성 논란 등으로 수세에 몰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일 3차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장검사 최종 후보자를 확정해 예정 인원(4명)의 2배수 이내를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기만 하면 공수처 검사 선발 절차는 마무리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평검사 19명을 선별하기 위한 1차 추천도 마쳤다.

공수처는 당초 계획대로 수사에 착수할

수사팀 구성을 이달 내 완료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두고 압초를 만났다.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유력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싼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공수처는 협력이 필요한 검찰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수원지검은 1일 김학의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전격 기소했다. 검찰 등과 수사·사무 규칙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수처가 주도권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의혹 관련 이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서 검찰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고 했

다. 이 과정에서 ‘송치’라는 표현을 비롯해 검사 범죄에 대한 기소권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공수처는 검찰, 경찰과 3자 협의를 추진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서로의 극명한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가 남아있지만 검찰이 사실상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는 이를 뒤집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두고 이 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달 7일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 이 지검장과 면담했다.

사건 재이첩 전 핵심 피의자를 직접 면담해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사실상 피의자 조사로 볼 수 있는데도 조서를 남기지 않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특히 면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

의 관용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키웠다. 1일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과천까지 BMW 차량을, 공수처로 향할 때는 김 처장의 관용차인 제네시스로 갈아탔다.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짧게 해명했다가 “관용차 2대 중 (처장의 차량 외) 2호 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라 이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자료를 냈다.

그러나 김 처장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처장과 차장 두 명뿐인 상황에서 조직을 제대로 갖추기도 전에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게 되면서 미숙한 대처가 눈에 띄게 드러나 위기를 겪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검사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기소 우선권은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처벌조항 합헌”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상고하면서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비방할 목적’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건강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인격권을 훼손하는 댓글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고, 명예훼손 피해로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해 명예 훼손 표현 행위를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통신망은 익명성과 전파성이 커 사실 진위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거짓 사실이 부분별하게 확산된다”면서 “거짓 사실이 여론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85% 인상 정당”

“인상해도 생산원가의 15%에 불과” 파기환송심, 항공사에 패소 판결

기상청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을 두고 벌였던 국내 항공사들과의 소송전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서울고법 4-1행정부(재판장 권기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8곳 항공사들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기상청은 항공기가 착륙할 때 사용하는 항공 기상정보를 무료로 제공했다. 그러나 2001년 12월 기상업법(기상법의 옛 명칭)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사용료를 징수할 규정이 생겼다.

기상청은 2005년 5월 처음 기상정보 사용료 기준과 금액을 정한 이후 2010년과

2014년 각각 한 차례씩 사용료를 올렸다. 기상정보 사용료 기준과 금액을 정한 이후 건당 수천 원 수준에서 요금을 부과했다.

항공 기상정보 요금에 문제를 제기한 곳은 국회사. 국정감사에서 기상정보 사용료가 지나치게 낮아 항공사들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기상청은 2018년 5월 항공기 착륙 때 내는 사용료를 기존보다 85% 인상을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

각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항공운영위원회 측과 협의해 사용료를 정했다.

항공사들은 2018년 6월 “항공 기상정보의 공공성과 제공 배경을 고려하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이들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항공 기상정보 이용을 거부할 수도 없어 사용료는 준조세 성격을 갖는데 사용료를 대폭 인상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1심은 기상청이 승소했으나 2심은 “사용료를 기존보다



‘세 모녀 살인’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
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북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 씨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연할뉴스

85% 올린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항공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현실화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사용료 징수 예상 금액은 여전히 정보 생산원가의 15%에 불과하다”고 항공사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Gary Armstrong
Philip Kotler
Marc Oliver Opresnik 지음
정연승·박철·이형재·조성도 옮김
600쪽 | 값 38,000원

마케팅의 아버지, 코틀러 교수의 최고의 마케팅 솔루션!

“돈 버는 기업들은 마케팅 계획이 다 있구나!”

★★★★★
세계적인
마케팅 입문서
Marketing: An Introduction
14판
번역서 출간

디지털 시대, 글로벌 마케팅 트렌드 읽기 : 고객가치와 고객참여를 통한 관계 구축

고객감동을 실현한 기업에는
장기적인 성장과 수익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목차
 PART 1 마케팅 정의 및 마케팅 프로세스 1 마케팅: 고객가치와 고객참여의 창출 | 2 기업전략과 마케팅전략: 고객참여, 가치, 관계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PART 2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 3 마케팅환경의 분석 | 4 마케팅정보의 관리: 고객통찰력 얻기 | 5 소비자와 기업구매자 행동의 이해
 PART 3 고객가치지향적 전략과 믹스의 설계 6 고객가치지향적 마케팅전략: 표적고객을 위한 가치창출 | 7 제품, 서비스, 브랜딩 전략: 고객가치 구축 | 8 신제품 개발: 그리고 PLC의 관리
 9 가격결정: 고객가치의 이해와 포착 | 10 마케팅 경로: 소비자 가치 전달 | 11 소매업과 도매업 | 12 고객참여와 고객가치 커뮤니케이션: 광고와 PR
 13 인적판매와 판매촉진 | 14 다이렉트, 온라인, 소셜 미디어, 그리고 모바일 마케팅
 PART 4 마케팅 영역의 확대 15 글로벌 마켓 | 16 지속가능한 마케팅: 사회적 책임과 윤리

교문사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16 | 전화 031-955-6111~4 | 팩스 031-955-0955 | genie@gyomoon.com

전략 투자·마케팅 강화로 '농식품 유니콘 기업' 육성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경영체 맞춤형 컨설팅

상담결과 종합 개별 경로 설정·규모별 투자유치 기회 제공 올해 10개사 선정 경영·기술·수출 분야 '스케일업 컨설팅'

1조3000억 원의 농식품 모태펀드를 총괄 관리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농림수산물경영체에 대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강화해 역량을 강화시키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특히 올해는 10개 기업을 선발해 중장기 전문 컨설팅을 시행하고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농금원은 올해 농식품산업과 농식품경영체의 특성, 투자환경 변화를 고려해 맞춤형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공개 사업설명회(IR)를 개최해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한다. 농수산물예비창업자도 벤처캐피탈 전문교육 등도 진행한다.

먼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농식품경영체들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체 수준별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식품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이 프

로그랩은 사업장 직접 방문을 통한 사업현황 진단과 사업계획서 고도화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농식품 모태펀드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문을 연 가운데 인베지움 투자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도 강화한다.

경영체별 온·오프라인 상담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별업체의 컨설팅 경로를 설정하며, 이후 경영체 규모와 역량에 따라 눈높이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된다. 또 VC(투자운용사)에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IR 자리를 마련해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투자를 원하는 경영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략적 투자지원 서비스도 추진한다. 박람회 참가, 팝업스토어 운영으로 농식품경영체의 오프라

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농식품경영체의 판로지원을 위한 언택트(비대면) 마케팅 지원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해외 e커머스 시장 입점 지원,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지원과 소비자의 데이터 추적을 통해 최적화된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퍼포먼스 마케팅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경영체의 예비 유니콘기업 성장·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컨설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경영·기술·수출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 전문컨설팅을 시행하며, 올해는 10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금원 홈페이지나 가운데누리 인베지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밖에도 농금원은 징검다리 펀드 운용사(VC)에게 투자를 원하는 경영체의 사업 설명 기회를 제공해 후속 투자와 사업확대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한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서울 여의도에 개



지난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개최한 농식품기업 사업 설명회(IR).

소한 가운데누리 인베지움 농식품 투자지원센터의 지역 기반 연계센터를 추가로 구축해 수도권 중심의 투자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접근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민연태 농금원 원장은 "농식품경영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사업 운영뿐만 아니

라, 농식품모태펀드가 정책펀드라는 성격에 걸맞게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투자 생태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공동기획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투데이

KYOBO 교보증권

금융투자협회심사필제 17-04991호(2020.11.15~2021.11.14)
교보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제 제 76-86호(2020.11.15~2021.11.14)

스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권 학원입금 10% 청구 할인
교보증권, 핫팩스, 영웅증권, 만디엔투니스 및 어학시험 응시료 10% 청구할인
-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등 CL, GS24 세븐일레븐 등 10% 청구할인
SKT, KT, LG+이동통신요금 10% 할인
-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리터당 100원 할인
- CMA 금융서비스혜택**
RFP에 자동투자해서 수익 제공
주식거래까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선월 실적 기준 충족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 1 Win.K 설치 후 비대면카드개설 시작
-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신청
- 3 주소 등 정보입력
- 4 신분증 촬영
- 5 거래인증
- 6 신청완료 카드배송 시작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중립적 설명의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상품에 따라 채권보험공사가 보충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비대면을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 거래 시 0.014%의 주식매매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 관련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지원센터(1544-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농어촌 냉·난방도 '친환경 시대' 온실가스·경영비↓ 농가 소득↑

농어촌공사, 화석연료 설비 교체사업 지속 확대

농어촌 지역의 냉난방 시설을 지역과 공기업 등 친환경으로 교체해 소득은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은 줄이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농어가에 친환경 난방시설을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농어업 생산물의 비용 중 냉난방 비용은 생산물 단가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냉난방 설비는 80% 이상이 유류 시설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노후 시설이 많아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농어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유류시설들을 친환경 설비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가의 난방시설을 지역·공기업 등 친환경 설비로 교체하는 것은 농어가의 경영비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온실가스를 절감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기존에 시행 중인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30~50%의 자비가 들어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자부담 비율 개선에 나섰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자부담 30%인 지열히트펌프는 지난해 20%로, 자부담 50%인 공기열 히트펌프는 30%로 낮췄다.

부담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56개 농어가에 약 450억 원 규모의 친환경 난방설비를 보급할 수 있었다. 2019년과 비교해 사업 참여 농가는 140곳에서 156곳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은 1만3000톤에서 1만5000톤으로 증가했고, 시설당 평균 난방비는 1억4000만 원에서 6600만 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시설당 평균 매출액은 9억5000만 원에서 13억1000만 원

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친환경 설비 농어가를 위한 추가 지원금 교부방안도 마련했다. 친환경 설비를 설치한 농가에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내주는 '고효율에너지기 공동 보급 사업'을 시행했다. 한국전력공사의 농어촌상생기금을 활용한 지원금을 통해 농어가 자부담 비용을 추가로 줄일 수 있게 됐고, 2019년도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친환경 난방 설비 농가가 탄소배출권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농어촌공사는 2019년 한국중부발전과 MOU를 맺고,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진행한 농어가 중 탄소배출권 판매 사업 신청이 가능한 사업 대상을 발굴하고 배출권 거래 제도의 등록·인정 절차와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지난해 10개 농어가가 탄소배출권 판매 사업을 등록해 가구당 480만 원의 농외소득을 올렸고, 연간 1455톤에 이르는 온실가스를 감축시켰다.

올해 3월에는 스마트팜-연료전지 융합시스템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했다.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전기를 발전시키는 블루수소 발전인 연료전지발전으로 발생하는 열과 이산화탄소는 온실 난방에 사용하고, 발전에너지는 전전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농업인은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를 활용한 전력과 신재생공급인증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올해 농어촌공사는 더 많은 농가가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150개, 총 4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전과의 협업 체계를 활용해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을 더욱 확대해 총 17개 농어가에 약 7억 원의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해근 기자 pinvol1973@

〈요가·조깅 등 가벼운 운동복〉

“애슬레저는 내가 최고 ‘자신감’ 1mm 오차도 허용 안 해”

W 기획 인터뷰 이수연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대표

한 낮의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완연한 3월 봄날에 찾은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활기찼다.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직원의 대부분이 MZ세대다. 회사를 이끄는 CEO 역시 MZ세대인 이수연 대표(39)다. 젊은 여성 CEO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을 진두 지휘했고 사실상 대표 브랜드인 ‘젝시믹스’를 국내 1위 애슬레저 브랜드로 끌어올린 인물이다.

사무실은 잘 정돈됐지만 서류만 있는 딱딱한 CEO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샘플실을 방불케 하는 각종 디자인의 의류가 행거에 가지런히 걸려있고 ‘젝시믹스’가 출시한 운동화와 홈트레이닝 기구까지 벽면과 선반을 채우고 있었다. 이곳이 이수연 대표에게 CEO의 공간인 동시에 디자인실, 상품기획실임을 유추할 만했다.

◇한국의 ‘롤루레몬’이 아닌 글로벌 ‘젝시믹스’ 키운다 =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위해서라면 1mm의 오차도 허용해선 안 됩니다. 그것이 ‘젝시믹스’의 철학이죠.” 수많은 애슬레저 브랜드 중 ‘젝시믹스’가 업계 1위에 오른 비결을 묻자 망설임 없는 답변이 돌아온다. 그는 자신과 브랜드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 제품 기획단계부터 출시까지 모든 부분을 총괄한다.

매출 1등 공신인 ‘셀라(CELLA) 라인’ 레깅스와 최근 업그레이드해 선보인 ‘블랙 라벨 시그니처 380N, 360N’의 개발 스토리는 그의 열정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소재부터 직접 개발에 참여한 이들 제품은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수 백 번의 수정과 테스트 과정을 거쳤다. 이 대표는 운동복은 착용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실제로 제품을 착용하고 요가, 필라테스, 헬스 등 다양한 운동을 해봤다. 평일뿐 아니라 주말, 심지어 잠잘 때까지 제품을 착용했다. 이들 제품은 현재 ‘젝시믹스’의 간판스타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본래 운동과 패션에 좋아하는 웹디

K애슬레저 1위 ‘젝시믹스’ 일류 각국 체형 빅데이터화 해외 공략

“운동할 때도 아름답고 싶잖아요” 립 티트 등 ‘애슬레저 뷰티’ 개척

직급 없애고 매출 1% 직원복지에 “어린이집·반려동물 유치원 만들것”

자이너였다. 여성 스포츠웨어 시장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는지 모른다. 우연히 ‘젝시믹스’에 팀장으로 입사할 기회가 왔다. 그리고 팀장에서 시작해 결국 CEO 자리를 거머쥐었다.

‘젝시믹스’에 입사하며 다졌던 각오를 실행으로 옮기는 데에 집중한 결과 ‘젝시믹스’는 ‘한국의 롤루레몬’으로 불리며 시장을 평정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한국의 롤루레몬’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젝시믹스’를 ‘K애슬레저’ 브랜드로 각인시키는 것이 그의 목표다. 이미 중국과 일본, 미국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다. 올해 안에 홍콩에 플래그십스토어도 오픈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해외진출에 앞서 철저한 현지 시장조사를 한다. ‘젝시믹스’는 아시아권에서는 이미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지난해 일본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라쿠텐에서 필라테스 의류 부문 1위에 오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최근 국가별마다 다른 체형에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통하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한국인과 다른 각 국가별 표준 체형 빅데이터 확보에 나선 것이다.

◇새로운 ‘믹스’는 현재진행형 = 최근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뷰티 분야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립티트, 베이스, 브로 등으로 구성된 제품은 운동할 때 땀이나 물



에 지워지지 않는 가능성을 갖추며 초도물량이 완판된 바 있다. 그는 화장품 라인업을 보다 강화하고 뷰티뿐 아니라 새로운 카테고리도 도전을 늘릴 계획이다.

“젝시믹스라는 브랜드 네임이 확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운동과 ‘믹스(MIX)’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들로 카테고리를 넓혀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첫 스타트는 ‘요가복과 애슬레저’의 믹스였습니다. 2015년 론칭 당시만 하더라도 요가복과 애슬레저를 함께 판매하는 곳은 ‘젝시믹스’가 유일했죠.”

뷰티는 ‘젝시믹스’가 만들어가는 두번째 ‘믹스’ 영역이다. 여성 CEO답게 운동을 하면서도 아름답게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여성들의 심리를 제품에 담았다. 그는 ‘젝시믹스’의 뷰티분야를 ‘애슬레저 뷰티’라는 새로

운 카테고리 만든 것이라고 평가한다. 향후 클렌징 라인도 추가할 계획이다. 코로나 19로 운동 후 샤워가 불안한 이들을 위한 ‘보디 클렌징 티슈’ 제작도 검토중이다.

◇직원이 행복해야 =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제도에도 유명하다. 이는 그가 ‘젝시믹스’ 팀장 시절부터 직원들과 소통해온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CEO가 된 후에도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노력한다”는 그는 사내에 일부 직책자 외에 직급을 없애고 호칭을 ‘프로’로 통일하고 있다. 회사 설립 초기부터 임직원들 모두가 서로를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수평적 사내문화를 조성한 것이다. 1년이상 재직자에는 기본적으로 매

년 평균 10% 내외의 연봉 인상률을 적용하고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기본 인상률 외에 추가 인상 제도를 도입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직원들이 필요한 다양한 생필품과 간식을 지원하는 ‘대표님이 쓴다’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며, 직원이 많은 회사 특성상 여성 전용 휴게공간과 수면실, 샤워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육아나 병원 방문 등 근무시간에 불가피하게 1~2시간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요구에 맞춰 휴가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반반차 휴가 제도도 도입했다.

그는 앞으로 사내 어린이집과 반려동물 유치원도 만들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 처음 ‘젝시믹스’에 입사할 당시 평균연령이 20대일 정도로 젊은 조직은 이제 평균 30대 초반으로 기혼자 비중이 매년 늘고 있다. 기혼 직원들의 가장 큰 고민인 육아문제를 해결해주는 곳이 사내 어린이집이라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직원들이 보다 편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반려동물 유치원이다.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한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매출의 1% 가량을 직원 복지에 쓸 만큼 직원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그는 여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다양한 직원 복지 역시 여성 직원 비중이 높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든 그의 배려다.

“내가 이 분야에서는 가장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어선 안 돼요. 내 노력이 보탬이 돼 제품이 탄생한 후 소비자를 통해 결과를 인정받으면서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다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는 직원들이 신나는 회사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3년 연속 2배 이상 성장이라는 기록을 쓰며 지난해 14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그가 올해 새롭게 쓸 신화가 벌써부터 금금해진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갱년기, 잡지 마세요!

갱년기엔 갱년기유산균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내 안의 나를 깨우다”

갱년기 여성건강과 장건강 동시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국내 유일 소재**

판매사 (주)휴온스
 제조사 (주)알피바이오
 소비자 상담실 080-447-4700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2021. 2월 기준

swanicoco
NATURAL COSMETIC

겉과 속 2중 잠금으로 눈에 보이는 동안 피부

SWANICOCO ORIGINAL PURE AMPOULE

EGF & FGF 퓨어앰플

10ppm 99% 고함량 앰플
피부 흡수 촉진 기술 적용



스와니코코 전속모델 문예원

Charlotte
문예원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드



BNE컨설팅 고문
동국대 명예교수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LH 임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토지 구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일반인, 심지어 원토지 소유자들도 모르는 개발 정보를 가진 정보 우위 상황에서 투자하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보 열위자인 일반 국민들의 손해를 담보로 이들이 이득을 취하는 특혜를 누렸다는 비난이다.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해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이다. 발의 당시 법안에는 이해관계 충돌(conflicts of interests) 방지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결국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조항은 빠지고 대신 적용 범위에 공직자 외 언론인과 교수들을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다.

최근 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땅투기 논란으로 국내 정치지형이 격변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다. 사정이야 어떠하든 당시 김영란법에 의해 충분히 준법을 강제할 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듣는 국민들이 국회, 나아가 우리 정치에 대해 갖는 불신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 공직에 있다 사회로 나와 느끼는 점은 공직, 특히 우리 정치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내부자와 너무 다르다

는 점이다. 한마디로 '기업은 1류, 정치는 3류'라는 것이다. 정의에 대한 기본 관념 없는 패거리 정치,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리가 주는 특권을 이용해 온 정치 행태들이 이런 평가를 부른 게 아닌가 생각된다. '정의롭고 공정한' 정부를 기대하고 표를 몰아주었던 20-30대들이 요즘 돌아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내집 마련에 좌절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주택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까지 가져온 이면에 공직자들이 사전에 취득한 정보로 특혜를 취한 데 대한 불만은 이 생애 대한 포기와 특혜 공직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표출되고 있다. 7일 있을 서울·부산시장 선거 후보들 간의 토론에서 정책공약과 실행 방안에 대한 평가는 사라진 지 오래다. 대신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취득 및 보상에 특혜가 있었느냐, 호화 아파트에 사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시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하며, 지위를 이용한 특혜와 불법적 이

득을 취하는 데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경제학에 도덕적 위해(moral hazard)라는 개념이 있다. 원래 개념은 당사자 간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 즉 한 당사자가 상대방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상황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때 도덕적 위해의 유인이 발생하고 결국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시장에서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낮은 건강한 사람보다는 건강이 안 좋아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을 믿고 건강에 주의를 덜 기울이는 도덕적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LH 임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토지 구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일반인, 심지어 원토지 소유자들도 모르는 개발 정보를 가진 정보 우위 상황에서 투자하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보 열위자인 일반 국민들의 손해를 담보로 이들이 이득을 취하는 특혜를 누렸다는 비난이

다. 정보 비대칭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로 금융이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일찌감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하여 엄격하게 직원들의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놓았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은 약 70%가 부동산, 나머지가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이다. 미국은 반대로 부동산 비중이 약 20%, 일본은 미국과 우리의 중간쯤 된다. 금융자산의 비중이 큰 미국의 경우 내부자정보(Insider information)를 이용한 이득 탈취행위에 대해 중벌을 가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도 내부에 준법감시기구(Compliance officer)를 운영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직원들의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공직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특혜와 투기로 우리 사회의 정의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자신들을 위한 방탄·책임회피 공간으로 '3류' 평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방로



권상집
한성대 기업경영트랙 교수

글로벌 스탠더드 못 미치는 사외이사 선임

이투데이, 말투데이

주요 기업의 주총이 지난 3월 말 모두 마무리를 지었다. 지난해 1월, 동일 상장사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기업들이 사외이사 선임이 쉽지 않다는 점을 토로했지만 이번 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선임된 사외이사 면면을 보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이트인 CEO스코어가 국내 267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직업군을 조사한 결과 범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사외이사 비율은 절반을 훨씬 넘긴 56.6%를 기록했다.

다수의 기업은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경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법조계와 정부 부처 관료들을 선임했다고 밝혔지만 ESG와 고위공직자 출신 사외이사 선임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다수의 연구를 살펴보면 관료, 법관 출신 사외이사 선임이 ESG 경영을 강화한다는 결과는 어디에도 없다.

말 그대로 사외이사는 회사 영향력 밖에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선임하여 이들로 부터 경영 전반에 걸친 조언과 전문지식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주주와 관련 없는 이사가 경영진의 전횡을 차단하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에 글로벌 기업의 사외이사는 경영 역량이 이미 검증된 CEO(최고경영자), 경영진들이 주로 선임되고 있다.

사외이사 본연의 임무가 경영에 대한 조언 및 객관적 감시라면 이 부분과 관련되어

사외이사가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선임해야 글로벌 기업의 스탠더드에 맞는 합리적 사외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글로벌 경영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사외이사를 구성하려고 해도 그 풀(Pool)이 한정되어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문성을 고려해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기업은 보이지 않는다. 정말 기업경영의 개선과 혁신을 위해서라면 투명한 절차로 사외이사를 공개 모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내 사외이사 선임은 늘 투명성과 공정성이 배제되어 있다.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이 불투명한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이유는 해당 업계에 대한 전문성보다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때로는 방어해줄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 법원, 국세청, 공정위, 기재부 출신의 인물이 사외이사에 단골로 오르내리는 이유이다. 국내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은 견제가 아닌 방에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간 기업에 비해 공

업 사외이사(비상임이사)의 절반은 낙하산 출신이다. 월 1회 이사회 회의에 참석, 거수기 역할만 하며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아 가니 대기업 사외이사 선임은 항상 정권 보은 차원의 성격이 짙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과 같은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회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 가깝다.

기업의 경쟁이 국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산업 간의 경계도 무너지면서 다수의 해외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 산업에 대한 전문성, 통찰력을 겸비한 외부 인사를 다수 등용해 이들로 부터 조언을 받는다. 인터뷰랜드에서 선정한 글로벌 100대 기업 중 법관·관료 출신을 다수 선임한 해외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는 거수기, 방패막이, 허수아비라는 조롱을 받는다. 해당 기업에 대해 정말 관심과 애정이 많고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을 공개 모집, 선발한다면 국내 기업의 이사회도 한층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의 사외이사 선임만이 국내 기업의 이사회를 향한 글로벌 기업의 비웃음을 잠재울 수 있다.

☆ 커트 코베인 명언
"태양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 줄기의 빛이 내게 비쳤다."

미국 가수. 1990년대 대중음악계를 상징하는 록 밴드 '니바나'의 프론트맨인 그는 록의 판도를 바꾼 마지막 아이콘으로 일컬어진다. 니바나의 대표곡은 'Smells Like Teen Spirit', 'Nevermind'. 헤로인 남용과 정신적인 문제로 그는 오늘 스포일러급 살 나이에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1967~1994.

☆ 고사성어 / 교룡득수(蛟龍得水)
영웅이 때를 만나 의지할 곳을 얻는다는 뜻이다. 교룡은 전설상의 용. 양(梁)나라 가남(南)할 군인 선발에 양대인이 자원했다. 말보다 빨리 달리는 재주 때문에 군주(軍主)로 특진한 그가 동료들에게 한 말. "나는 오늘 마치 교룡이 물을 얻은 것 같다. 앞으로는 너희들과 자리를 같이할 수도 없을 것이다." 출전 북사(北虜) 및 위서(魏書) 양대안전(梁大眼傳).

☆ 시사상식 /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어렵게 만드는 경영권 보호기법. 최고경영자가 거액의 퇴직금, 스톡옵션, 명예퇴직 등을 다소 높게 책정해 놓는다. 이 계약이 황금낙하산이 되는 것이다. 최고경영자가 고용계약에 이 규정을 정해 두는 것은 직접적으로 경영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측으로서 기업 인수비용을 높일 때 방어책으로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 우리말 유래 / 활개를 치다
의기양양한 태도로 휘젓고 다닌다는 말. '활개'는 활짝 편 두 팔과 다리를 일컫는다.

☆ 유머 / 아내보다 나은 도둑
신용카드사에서 "고객님 카드 사용 행태에 이상이 감지돼 전화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 남편이 한 달 전에 카드를 분실했다고 하자 도난 신고를 왜 안 했느냐고 되물었다.

남편의 대답. "그게요. 제 카드를 훔친 사람이 아내보다 훨씬 적게 쓰더라구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정말 내년에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만난 항공사 관계자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는 "작년에도 내년에는 나아질 거라고들 말했는데 올해도 변한 게 없다"라면서 "내년에도 '내년엔 나아질 것'이라 말하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니 정말로 내년에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냐는 말에도 표정이 밝아지지 않았다.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휴직을 하는 동안 내일배움카드를 직업 교육을 받았는데 각 항공사의 직종별 직원들이 다 모였다"면서 "평소에 만날 일 없던 승무원과 정비사, 지상직 직원이 코로나 덕분에 만나게 되더라"고 '웃픈' 이야기를 들려줬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올해부터 매월 내놓는 항공 관련 통계를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대신 2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이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지난해와 비교하는 것

은 의미가 없어져서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위기는 몇 달 만에 회복되면서 해를 넘기지 않았다. 반면 코로나19는 언제쯤 끝이 날지 모른다. 항공사들이, 업계 종사자들이 그때까지

현장에서



이주혜 산업부/winjh@

내년에는 나아질까

버틸 수 있을지 자신하기 어렵다. 국내선 확대, 관광비행과 같은 고속책은 적지를 줄이는 정도에 불과하다. 일부 항공사들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금 확충을 고려해 전환사채와 신주 발행 한도를 늘리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는 유상증자에 성공해 자금을 마련했지만, 올해에는 유상증자를 한다 해도 시장이나 투자자가 응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정부가 항공업계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수급 조건과 규모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항공산업은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중요한 특성상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9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거위가 비명을 지르지 않게

“과세의 기술이란 거위가 최소한으로 꺾꺾거리게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털을 뽑는 것이다.” 몇 년 전 한 고위공직자가 세계개혁안을 두고 이 말을 인용했다가 곤욕을 치른 일도 있었지만, 이는 원래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상이었던 콜베르가 한 말이다. 이 말은 조세의 실제 부담을 호도하는 과세기술상의 이야기도 되겠지만,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조세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내지만, 소득 또는 사유재산의 강제적 이전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세 부담이 너무 커져 생존에 위협을 가할 정도가 된다면 필연적으로 민중의 저항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극적인 예로 영국의 대항장,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같은 역사적 사건들의 직접적 도화선이 바로 세금 문제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경복궁 중건을 위한 인두세 부과와 일종의 강제 성금인 원납전의 시행이 대원군 실각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런데 의회민주주의가 확립된 이후에는 이른바 ‘대표없는 과세는 없다’는 원칙이 작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체제를 개혁시킬 만한 혁명적인 조세저항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만약 광범위한 저항을 불러일으킨 한 세계개혁을 시도하면 그 다음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이 보수당의 당수직을 내려놓게 된 것(즉, 수상 후보를 사퇴한 것)도 인두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 若烹小鮮 (약팽소선)

건국대 석좌교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적 요소가 큰 세계개편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증세는 더 이상 혁명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정치적 비인기 품목’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마 정치적 개혁 또는 선거에 의한 심판이 아닌 주민들의 청원 및 투표에 의해 세 부담을 직접 경감시킨 의미 있는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1978년 통과시킨 ‘제안 13(propotion 13)’일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주민발의를 청원의 형태로 제출한 후 주민 일수 이상이 이에 찬성하면 제안으로서 주민투표에 회부되며, 그 제안이 유효투표 50% 이상을 획득하면 주 헌법 또는 법률로 확정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1978년 당시 통과된 제안의 내용은 재산세 세율을 최고 1%로 제한하고 재산평가액의 상승률을 매년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로 제한하는 것인데, 이는 재산세 부담이 57%가량 줄어드는 직접적 효과가 있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제안의 통과가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1980년대 조세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우리 정부는 최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강화와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세수 확보뿐

아니라 이른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투기 방지에 보유세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세후수익률을 낮추면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조세의 전가를 통한 가격인상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종합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방지 내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조세를 포함한 여러 수요억제책과 함께 공급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 억제와 세수 확보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율 인상이나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공시지가 인상은 너무 급격해서는 안 된다. 위에 예로 든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세율과 재산평가액 양자 모두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재산세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타산지석은 될 수 있다.

사실 재산세가 비교적 왜곡이 적고 지방세로서 적합한 장점이 있는 반면, 과세기준은 공시지가라는 추정치에 의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공시지가는 실제가와 격차가 너무 크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세율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공시지도 올릴 때는 올려야 하지만, 너무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현재의 공시지가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거위들이 비명을 지르지는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사설

코로나19 4차 유행, 더디기만 한 백신 보급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4차 유행’에 들어서는 양상이다. 정부도 모든 일상공간에서 감염이 넓게 번지고 있어, 4차 유행을 예고한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백신 접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다시 상황이 심각하게 흐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43명 증가해 누적 10만5279명이라고 밝혔다. 지역 발생이 514명, 해외유입 29명이다. 주말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크게 줄었음에도 500명대 확진자가 나온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작년 11월 중순부터의 3차 유행 이후 지난 한 달 남게 300~400명대 확진자가 유지되다, 최근 5일 연속 500명을 넘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른다. 4차 유행 조짐은 더 강해지고 있다. 봄철 인구가동이 많아져 확진자 증가가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 음식점·유흥업소 등과 콜센터·물류센터 같은 밀집도 높은 사업장,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코로나19 4차 유행을 우려하면서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정부의 집합제한과 다중이용 시설 영업금지 등 방역 강화가 불가피하고, 국민들은 계속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버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최악의 사태를 막아왔다.

문제는 백신 접종이다. 정부는 1일부터 75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2분기 시행계획도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나 백신물량 확보는 답답하기만 하다. 당초 9월까지 전 국민의 70%에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던 목표도 멀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유럽과 인도 등이 수출을 제한해 국내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2일 밝힌 백신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도입계약 물량은 910만 명분인데 지금까지 134만5500명분이 들어왔다. 코백스(국제백신공급기구)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백신 외에 개별계약을 통한 물량이다. 현재 1차 접종을 마친 인원은 96만2000여 명이다. 정부의 2분기 계약 물량은 AZ 455만 명, 화이자 314만8500명 등 769만8500명분이다. 하지만 언제 들어올지 분명치 않다. 정부가 뒤늦게 확보에 나선 모더나와 안센, 노바백스 백신 등의 도입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러시아 스푸트니크V와 중국 시노팜의 백신이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아직 효능이 불확실하고 신뢰성이 떨어진다. 백신 보급과 집단면역이 지연되면 국민들의 일상 회복도 늦어진다. 국민들에 끝없이 방역만 강조하는 것도 한계상황이다. 이제 백신 말고는 돌파구가 없다. 정부는 충분한 물량의 조기 확보로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노트북을 열며



박은평
사회경제부 차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7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임기 1년 남짓한 새 서울시장의 탄생이지만 관심이 많다. 누가 되는지에 따라 내년 3월 치러질 차기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앞으로의 정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는 끝났지만 아직 본게임이 남아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권이 있는 시민들의 책임감과 주인의식이다.

투표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며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다. 사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은 “정치는 너무 중요해서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가 투표해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70여 년 민주주의의 길을 걸어왔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평가의 시간이다. 국민이 정당과 공직자를 심판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민생을 얼마나 보살폈는지, 삶은 나아

투표를 망설이는 이들에게

졌는지 등을 따져 표를 여당에 줄지 야당에 줄지 선택해야 한다.

나라의 중요한 일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물어왔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거나 헌법을 바꾸는 중요한 일은 국민의 투표로 이뤄지고 있다.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고 절차도 번거롭지만 국민이 직접 참여해야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치에 침묵하거나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표를 주면 그 화살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한 표가 작고 티도 나지 않는다고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한 표 한 표가 모여 시민들의 목소리가 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찍은 후보가 없다고 투표권을 포기한 유권자의 의사는 드러나지 않고 정당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투표는 의사를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보궐선거일은 총선, 대선과 달리 휴일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투표율도 떨어진다. 하지만 대선 전초전이라 불리는 이번 선거의 사전 투표율은 20.54%로 역대급을 기록했다. 서울과 부산의 사전투표율은 각각 21.95%, 18.65%였다. 기존 재보

선 사전투표율 최고치인 2014년 10·29 재보선 19.4%보다 1.14%포인트나 높다.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인 20.14%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때 최종 투표율은 60.2%였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최종 투표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던 ‘사이 진보’가 사전투표장을 찾았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에 분노한 2030이 향했으리라 전망하고 있다. 실제 어느 당에 유리할지는 무경을 열어보기 전까지 아무도 모른다. 그동안의 수치만으로 예단할 수 없다. 우리는 소중한 한 표를 소신껏 던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장에 나가 주권을 행사하고, 선거가 끝난 후엔 당선자가 제대로 된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임기 동안에 잘하는 건 지지해주고 잘못하는 건 비판하는 감시자의 역할도 해야 한다. 자신만이 던질 수 있는 한 표로 역사를 새로 쓰는 일에 동참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투표소를 찾는 이들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pepe@

미리 보는 한 주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30%대 늘 듯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의 올해 첫 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지난해 지출 가계동향과 올해 2월 국제수지 통계도 공개된다.

삼성전자는 7일(수) 1분기 잠정 실적을 내놓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미국 오스틴공장 가동 중단 등의 악재를 딛고 지난해보다 3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를 실현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이 9.6% 증가한 60조6500억 원, 영업이익이 36.4% 늘어난 8조7958억 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분기 영업이익 6조4500억 원의 저조한 실적을 보인 이후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3분기 12조3500억 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매출 236조8100억 원, 영업이익 35조9900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78%, 29.62% 증가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2월 국제수지(잠정)를 공개한다. 앞서 1월의 경우 경상수지는 70억6000만 달러(약 8조343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째 흑자일 뿐 아니라 지난해 같은 달(5억

8000만 달러)보다 64억8000만 달러나 많았다.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 흑자가 늘어난 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수지 적자 등은 줄었기 때문인데, 2월에도 같은 기조가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2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한 448억1000만 달러, 수입은 13.9% 증가한 421억1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0개월 연속 흑자(27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8일(목) 2020년 지출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작년 가계 소비 지출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가계가 지출 규모를 얼마나 줄였는지, 또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밖에 5일(월) 한은은 3월말 외환보유액을, 산업통상자원부는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내놓는다. 6일(화)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이 나오고, 7일엔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월)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4월)이 공개된다.

정리=홍석동 여론독자부장 hong@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미래를 위한 쌍용양회의
새로운 도전



쌍용 C&E
양용양회



지난 반세기, 시멘트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온 쌍용양회.
이제, 환경사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쌍용C&E(Cement & Environment)로 새롭게 시작합니다.